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방안

**Sport pedagogical application plan with
reading-golf for fostering golf literacy**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
이 성 희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방안

지도교수 최 의 창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
이 성 희

이성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방안

이 성 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지금까지 골프를 단지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골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든다. 골프를 통해 교양지식을 넓히고, 경제, 경영과 같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철학을 모색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골프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읽는 골프, 골프 서적을 통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읽는 골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읽는 골프의 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방법,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골프소양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읽는 골프의 현황은 어떠한가?,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중에 출간된 골프서적 400권을 선정하여 이중 250권을 읽는 골프의 개념과 목록 별로 정리 했으며, 다양한 장르 별 분류를 통하여 각 장르별 읽는 골프 자료를 취합하고 대표적 읽는 골프의 도서를 분석하여 읽는 골프를 통한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을 올바르게,

골프를 올바르게 받아드리고 느끼기 위해서는 골프를 다양한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골프 기술, 이론, 지식, 골퍼의 마음자세 등의 골프소양이 필요하다. 골프소양은 기술적인 측면인 ‘골프능(能)’, 지식적인 측면인 ‘골프지(智)’, 마음가짐에 관한 ‘골프심(心)’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둘째, 읽는 골프의 현황은 국내 대형서점과 국내외 온라인을 통해 출판되어 있는 골프관련 서적 400여개 정도로 파악했으며, 절판된 서적과 내용적 한계가 있는 서적은 제외하고 250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50권 가운데 내용을 확인 후 16개의 장르로 구분하였다. 읽는 골프의 장르로는 경영, 골프장, 교양, 기술, 소설, 심리, 수필, 인물, 자기계발, 잡지, 정보, 만화, 유머, 의학, 종교, 클럽이다.

셋째, 읽는 골프의 교육적 활용방법으로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골프능’에 대하여 기술서적과 심리서적을 읽음으로서 다양한 이론을 접하고 사색을 통해 본인만의 이론이 정립되어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골프관련 지식의 함양인 ‘골프지’에 관해서는 역사, 문화, 소설 등을 읽음으로서 골프관련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골퍼의 마음가짐에 대한 ‘골프심’은 골프의 정신인 룰과 매너를 잘 지키며, 골프를 통해 마음수양 및 자기계발이 될 수 있도록 수필, 교양서적을 읽음으로서 심적 소양을 함양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읽는 골프를 활용한 골프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골프코칭 프로그램에 읽는 골프 영역이 추가 되어 골프소양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의 코치들에게 읽는 골프에 대한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읽는 골프를 통하여 현장의 프로, 코치들의 기술적인 측면에 편중된 관심에서 벗어나 다방면의 골프 지도가 가능케 하는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도자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운동소양, 골프소양, 읽는 스포츠, 인문적 교육, 골프 교육
학 번 : 2006 - 21833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문제	5
4. 연구 방법	5
가. 연구설계	5
나. 자료수집	6
다. 자료 분석	7
5. 연구의 제한점	9
II. 운동소양과 골프소양	10
1. 운동소양	10
가. 운동소양의 개념	10
나. 운동소양의 구성요소	12
2. 골프소양	14
가. 골프소양의 개념	14
나. 골프소양의 구성요소	15
3. 운동소양과 골프소양의 인문적 접근	19
가. 운동소양 함양의 인문적 접근	19
나. 골프소양 함양의 인문적 접근	21

Ⅲ. 읽는 스포츠와 읽는 골프 23

1. 읽는 스포츠	23
가. 읽는 스포츠의 개념	23
나. 읽는 스포츠의 활용	27
2. 읽는 골프	31
가. 읽는 골프의 개념	31
나. 읽는 골프의 리스트	33
다. 읽는 골프의 장르	48
3. 대표적 읽는 골프의 분석	67
가. ‘기량향상’ 읽는 골프	67
나. ‘문화이해’ 읽는 골프	77
다. ‘확장변용’ 읽는 골프	86

Ⅳ.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 92

1. 골프 ‘능(能)’소양 향상	92
가. 골프 ‘능(能)’소양 향상을 위한 방법	92
나. 골프 ‘능(能)’소양 향상을 위한 읽는 골프	94
2. 골프 ‘지(智)’소양 증진	96
가. 골프 ‘지(智)’소양 증진을 위한 방법	96
나. 골프 ‘지(智)’소양 증진을 위한 읽는 골프	97
3. 골프 ‘심(心)’소양 함양	100
가. 골프 ‘심(心)’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	100
나. 골프 ‘심(心)’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101

V. 결론 및 제언	103
1. 결론	103
2. 제언	105
가.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골프교육을 위한 제언	105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06
 참고문헌	 109
<부록1>	117
Abstract	118

표 목 차

[표 1] 수집된 자료의 목록	7
[표 2] 전문가 회의 구성원	9
[표 3] 학습태도와 사고성향에 따른 학습유형	30
[표 4] 읽는 골프의 리스트	33
[표 5] 골프능, 학습자 수준에 따른 분류	94
[표 6] 골프능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96
[표 7] 골프지, 학습자의 성향에 따른 분류	97
[표 8] 골프지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99
[표 9] 골프심, 내적 측면의 의한 분류	101
[표 10] 골프심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102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설계	6
[그림 2] 읽는 골프 선정 방법	8
[그림 3] 운동 소양	13
[그림 4] 골프소양의 구성요소	17
[그림 5] 읽는 스포츠의 효과	27
[그림 6] 독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29
[그림 7] 골프 서적 코너	32
[그림 8] 가판대 위의 골프 코너	32
[그림 9] 골프 서적	32
[그림 10] 읽는 골프의 분류	48
[그림 11] 기술 부분의 읽는 골프	50
[그림 12] 심리 부분의 읽는 골프	51
[그림 13] 의학 부분의 읽는 골프	52
[그림 14] 클럽 부분의 읽는 골프	53
[그림 15] 수필 부분의 읽는 골프	54
[그림 16] 인물 부분의 읽는 골프	54
[그림 17] 소설 부분의 읽는 골프	55
[그림 18] 교양 부분의 읽는 골프	56
[그림 19] 잡지 부분의 읽는 골프	57
[그림 20] 골프장 부분의 읽는 골프	58
[그림 21] 경영 부분의 읽는 골프	59
[그림 22] 자기계발 부분의 읽는 골프	60
[그림 23] 정보 부분의 읽는 골프	60
[그림 24] 만화 부분의 읽는 골프	61
[그림 25] 유머 부분의 읽는 골프	62

[그림 26] 종교 부분의 읽는 골프	62
[그림 27] 읽는 골프의 분포도	65
[그림 28] 읽는 골프의 장르별 수	66
[그림 29]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68
[그림 30] 샷게임 바이블	69
[그림 31]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집	70
[그림 32] 퍼팅, 마음의 게임	72
[그림 33] 쟂 골프	73
[그림 34] 골프 아나토미	74
[그림 35]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	75
[그림 36]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	76
[그림 37] 골프 道를 만나다	78
[그림 38] 코리아 탱크 최경주	79
[그림 39] 끝나지 않은 게임	80
[그림 40] 배거 밴스의 전설	81
[그림 41]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82
[그림 42]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	83
[그림 43] 골프다이제스트	84
[그림 44]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85
[그림 45]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	86
[그림 46]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87
[그림 47] 대한민국골프백서	88
[그림 48] 버디	89
[그림 49] 페어웨이에서 천국까지	90
[그림 50] 골프 묵상	9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들어 골프의 양적 측면에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의 인기가 뜨거워서 골프대회가 열리는 대회장은 인산인해였다. 하지만 현재는 골프대회장을 찾는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본인의 라운드를 위해 골프장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미골프재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00만 명의 골프인구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우승소식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들려오고, 국내에서도 남자, 여자 대회 할 것 없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골프 팬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러한 인기로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골프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남자골프대회가 열리는 대회장에는 선수와 가족, 대회 진행요원,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갤러리들이 전부다.

이러한 현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골프를 하는 것, 볼거리 등의 외형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몸으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프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놓치고 있던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골프의 본질, 골프의 정신, 골프를 통한 자아실현 등 골프를 다양한 접근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찾지 못한 새로운 골프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 20년 전 박세리, 김미현, 최경주 등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들이 미국 PGA, LPGA에서 승전보를 알려오면서부터 국내의 골프인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 US 여자오픈에서 박세리 선수가 워터 해저드에 빠진 볼을 치려고 양말을 벗었을 때 햇볕에 그을린 발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로 큰 시름을 하고 있던 터라 박세리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오기 충분했다. 이런 모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세리 선수에 대한 존경과 골프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후 많은 선수들이 골프의 중심지인 PGA, LPGA 투어에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골프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최나연, 신지애, 유소연, 박인비, 배상문 등, 많은 선수들이 외국에서 한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렇게 해외투어 활동을 하는 선수들로 인해 국내 골프투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PGA, 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국내 골프대회에 참가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보려고 대회장에는 수많은 갤러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사들이 대회장으로 모였다. 이런 열띤 취재열기로 유명선수들의 인터뷰 및 대회 소식 등 다양한 골프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골프소식은 골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식을 줄 모르던 골프 열기가 서서히 주춤하고 있다. 골프대회장에 갤러리가 줄고, 골프 라운드를 하는 사람의 수가 줄며, 골프인구의 감소로 인해 골프클럽, 용품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며 자사 브랜드들을 매각하고 있다(안호원, 골프야 놀자, “골프산업”, <http://www.thegolftimes.co.kr>, 2016, 8, 8).

이토록 황금기를 구가하던 골프가 왜 식어만 가는 것일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운동은 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운동은 몸소 체험해야 그 운동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운동이 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운동이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육체적 건강과 심신의 안정, 스트레스 해소 등 운동의 효과는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운동의 종목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등산을 하면서 지구력과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고, 축구 시합을 하면서 민첩함과 협동심을 배우며, 친구들과 야구를 하면서 룰과 게임에 대한 전략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몸소 체험 방식에는 다양한 한계는 있다.

첫째, 실력에 관한 것이다. 내가 일정한 실력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경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축구를 아무리 잘하고 좋아하더라도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고서야 선수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알기 힘들다. 또한 선수들 중에서도 국내 무대만이 아닌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에서 뛰어보지 못했다면 선수들끼리도 축구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이다.

둘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열심히 훈련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경지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알기 어렵다.

셋째,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지만 히말라야 가보지 못했다면 히말라야 산맥이 주는 멋과 고산에서 느끼는 감정, 호흡 등은 체험하기 어렵다.

이렇듯 몸소 체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의창, 2003, 2006). 어떠한 방식으로 운동을 접하는가에 따라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체육의 목적 중 전인(全人)으로서 성장이 있다. 이러한 체육의 목적인 전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소양을 함양해야 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최의창, 2013a). 운동소양은 운동을 행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 머리에 축적된 역량이고, 심적 자질이다(문경남, 2017). 운동소양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의 기능, 지식, 태도를 통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최의창, 2010, 2013b). 운동을 하는 것, 기법적인 측면만이 아닌 운동의 정신과 안목, 지혜와 같은 심법적인 측면을 동시에 함양함으로써 운동의 외적, 내적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올바른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우리가 하던 운동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운동을 접하게 될 수 있다.

골프에서도 골프소양이 필요하다. 실력 향상을 위한 신체적 활동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의 정신과 안목, 지혜와 같은 심법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드라이버로 볼을 멀리 보내고,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하고, 숏게임으로 핀에 볼을 잘 붙이며, 어떠한 거리라도 홀컵

에 볼을 잘 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의 정신을 알아보고, 그 정신을 따르고자 하며, 골프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골프 소양을 통해서 골프 내면에 담겨있는 참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골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인문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문적 방법은 체육을 가진 철학적, 종교적, 문학적, 예술적, 역사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최의창, 2006).

이러한 인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독서이다. 골프관련 서적을 읽음으로서 골프의 철학, 역사, 문화를 습득하며, 기술적 발전도 가져 올 수 있다. 골프관련 도서, 즉, 읽는 골프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골프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골프의 본질 및 내면의 정신과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을 채워 줄 수 있다. 이러한 읽는 골프를 기존에 기법적 측면인 하는 것,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던 골퍼들에게 새로운 골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골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 줄 수 있다.

현재 읽는 스포츠, 특히 읽는 골프와 관련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포츠 문학과 관련된 연구만 몇몇 학자들에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프소양 함양의 한 방법인 읽는 골프를 찾아보고, 분석하여, 장르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읽는 골프가 골프소양 함양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골프를 함에 있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에 한계를 인식하고 간접체험으로 가능한 골프의 다양한 지식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골프소양을 함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읽는 부분인

독서를 통한 골프소양 함양을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골프소양 함양을 위해 골프 소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읽는 골프에 대한 개념과 리스트를 정리하며, 장르를 분류 하는 것에 있다. 또한 조사된 읽는 골프를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구 문제

첫째, 골프소양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읽는 골프의 개념은 무엇이며, 리스트와 장르의 구성과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셋째,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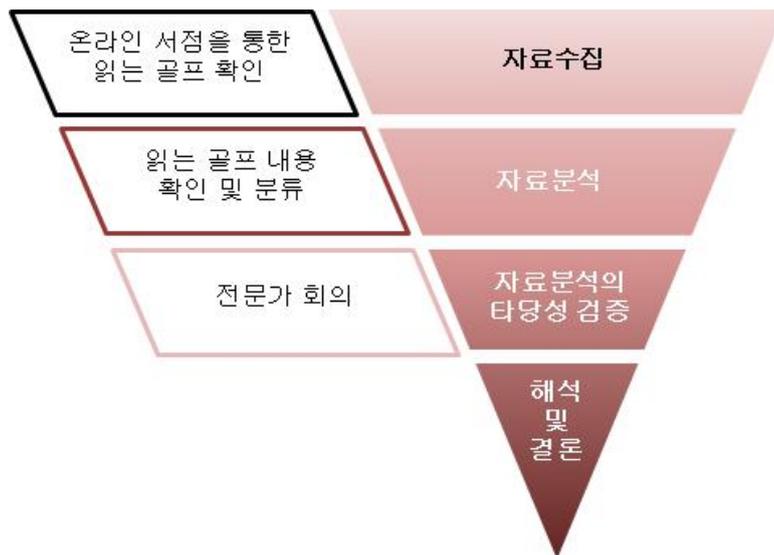
4. 연구 방법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골프소양 함양을 위해 읽는 골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읽는 골프를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현상의 복잡한 부분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복잡한 현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조용환, 2003). 문화에 관한 연구 접근은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강덕모, 2010)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골프소양 함양을 위

한 읽는 골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분류 및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온라인 서점과 시중의 대형 서점을 방문해 골프 관련 다양한 서적을 확인 하였다.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골프관련 서적의 리스트를 확인 하였으며, 시중의 대형 서점을 방문하여서는 읽는 골프의 출판 형태 및 분류 방법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 된 서적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되는 서적을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사례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설계

나. 자료수집

읽는 골프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부산의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반디엔루이스, 영풍문고를 방문하여 읽는 골프의 출판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국내 외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그리고

반스엔노블, 아마존 닷컴과 학술자료 검색사이트인 riss, kiss 및 골프 관련 블로그를 검색하여 활용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연구실’의 인문적 체육교육을 위한 도서목록인 ‘읽는 스포츠의 매혹’을 참조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읽는 골프를 검색할 때는 특정 선수의 성명, 골프 분야의 기술명 등을 세부 키워드로 입력하였다. 또한 ‘인물’, ‘레슨’, ‘소설’, ‘문화’, ‘기술’, ‘심리’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약 400여권의 골프분야 서적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 읽는 골프 관련 논문, 인터넷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수집된 자료의 목록이다.

[표 1] 수집된 자료의 목록

종 류	내 용
서적	국 · 내외 골프 관련 서적
잡지	주간, 월간 골프잡지
논문	골프 서적에 관한 국, 내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인터넷 자료	블로그, 카페, 기사에 게재 된 읽는 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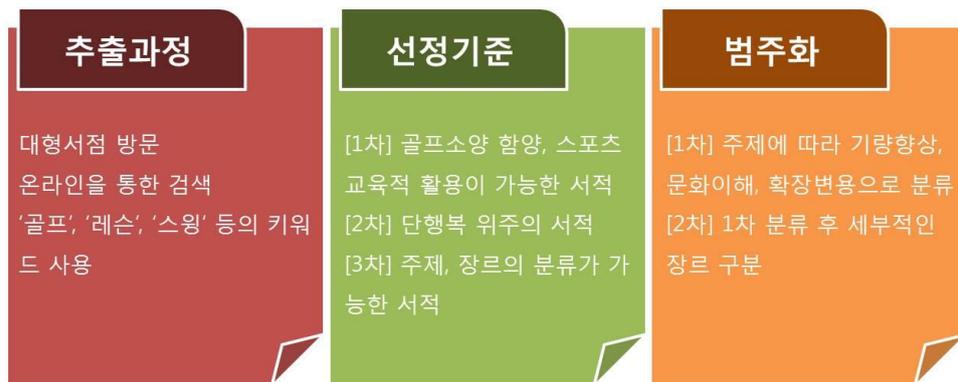
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서적, 잡지, 논문, 인터넷 자료를 통해 수집된 결과에 대하여 사례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 분석(inductive categorical system)을 실시하였다. 귀납적 범주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을 단어에서 소주제 중심으로 점점 범주를 확대시켜 범주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범주별 연관을 추구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목적을 규명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다(박종률,

2003). 질적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구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읽는 골프의 현황과 장르 구분,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달성하고자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읽는 골프의 자료를 직접 구입하고, 구입이 어려운 서적은 시중의 대형 서점을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 하며, 분석을 하였다.

확인 된 골프 관련 서적 중 본 연구의 목적인 골프소양 함양, 스포츠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서적을 1차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는 단행본 위주의 서적을 나누고, 3차적으로는 주제, 장르의 분류가 가능한 서적을 분류 하여 총 250권의 읽는 골프 자료를 선정하였다.



[그림 2] 읽는 골프 선정 방법

선정 한 250권의 읽는 골프 자료를 기량향상(Performance), 문화이해(Culture), 확장적용(Application)의 3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장르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를 통해 총 16가지의 세부적인 읽는 골프의 장르를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장르를 가지고 스포츠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가 회의의 구성원은 전 골프언론 및 잡지사 임원, 전 국가대표 코치, 전문 교습가, 골프마케터와 같이 골프와 관련된 직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4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석,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골프지도 경력 및 골프업계 종사 경력이 최소 15년 이상인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표 2] 전문가 회의 구성원

성 명	골프 경력	직 업	학 력
이백돌	31년	전) 골프잡지사 편집국장	석사
김퍼팅	25년	레슨 프로	박사
배장타	27년	전) 국가대표 감독	박사
이버디	16년	골프 마케터	석사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읽는 골프를 분류하면서 기술, 수필, 심리 등 서적의 내용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골프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 서적들이 있어서 정확한 분류의 한계가 있다.

둘째, 국내 골프 및 관련문화의 현실을 고려한 연구를 위해 실정에 맞지 않는 해외 출판 간행물 및 관련 정보를 배제하였으므로 국내골프에 국한된 연구의 한계성이 있다.

II. 운동소양과 골프소양

1. 운동소양

가. 운동소양의 개념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한다. 더 나아가 운동은 삶의 만족을 높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녁마다, 주말마다,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며 건강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푼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운동을 잘 하는 거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말한 것들은 전부 운동을 몸으로 직접 하는 부분만 이야기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운동의 단적인 측면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한 가지 측면만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보면 운동의 참된 의미와 효과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생긴다(최의창, 2001). 그럼 올바르게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올바르게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접함으로써 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운동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한 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합, 통섭, 홀리스틱 등 다양한 용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영국의 체육교육학자 Margaret Whitehead(2001, 2007, 2010)은 체육교육의 핵심 목표는 사람들에게 피지컬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일생동안 신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욕, 자신감, 신체적 능력, 그리고 지식과 이해력이라 표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람마

다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피지컬 리터러시에서 “리터러시”는 글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문해력, 文解力)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현상과 활동을 텍스트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고 해석해 낼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화적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기능적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감정적 문해력 등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문맥에서 새롭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포괄적 의미로 리터러시란 “해당 분야 혹은 대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종합적 이해력과 실행력”을 이야기한다(신희선, 2006). “피지컬 리터러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리터러시를 “신체활동”의 영역에 활용한 아이디어다. 화이트 헤드가 규정한 피지컬 리터러시에서는 “신체적 능력”(physical competence)만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력”(knowledge and understanding), “의욕과 자신감”(motivation and confidence)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Margaret Whitehead, 2010). Margaret Whitehead가 주장한 이러한 개념은 신체활동을 오랫동안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몸의 능력과 머리의 지식, 마음의 상태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개념이다.

최희창(2010c)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것보다 이해하기 용이하고 그것에서 제외된 부분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정리하여 체육교육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능력 혹은 자질을 통합적 성격을 지닌 “운동소양”(運動素養)이라고 표현했다. “운동소양”(運動素養)은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나 상태”를 뜻한다. 운동소양의 안에는 운동을 몸으로 실행할 수 있고, 머리로 생각 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최희창, 전세명, 2011, p. 99). 운동소양은 무엇인가 몸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competence)이나 능력(capacity), 재능(ability)의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향(disposition), 심성(humanity), 태도(attitude)의 내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운동소양은 운동을 통하여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전통적 운동문화에의 입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운동향유력을 함께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문경남, 2017).

몸을 통해 운동을 하고 머리로 운동에 관한 생각을 하며, 마음으로 운동을 이해하며, 느끼는 것이 비로소 운동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소양을 통해 운동의 참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운동소양의 구성요소

최의창(2012)은 운동소양을 능력, 지식, 태도로 표현하였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운동에 관한 지식, 그리고 운동을 대하는 태도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運動心), 이라고 정의 하였다.

첫째, ‘운동능’은 운동의 다양한 동작들과 수준별 기술들을 활용하여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기능적 재능을 의미한다. 단순한 동작에서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까지, 정적인 하나의 자세에서 부터 연속적인 동작까지, 반복 훈련을 통한 기계적 동작에서부터 훈련을 넘은 예술적 연기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수준의 신체적 기술과 전문 스포츠 인이 구사할 수 있는 고난도 수준의 표현능력을 포함한다. 다양한 수준에서부터 신체적으로 여러 동작을 발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둘째,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적 자질을 말한다.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담은 철학적, 사회학적, 역사적, 심리학적, 생리학적, 역사적, 의학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수준을 뜻한다. ‘운동지’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운동능’에 해당하는 측면들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운동심’은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말한다. 운동에 대한 열정, 인내, 사랑 등과 같이 내면적 측면에서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내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운동에 대하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의적 상태인 희로애락을 총체적으로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운동능’과 ‘운동지’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운동소양”(運動素養)은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運動心) 이 세 가지 자질들이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동소양은 평생에 걸쳐 함양되는 자질이므로 한 곳에 편중되거나 결여되지 않도록 조화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림 3] 운동 소양

이처럼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능’(能), ‘지’(智), ‘심’(心)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운동을 하는 것, 즉 ‘능’에만 치우쳐져 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리고, 어떻게 하면 높게 뛰고, 어떻게 하면 멀리 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운동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어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운동의 ‘지’와 ‘심’의 개념을 더하여 운동의 목적과 방법의 개념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운동소양”을 함양하여야 한다(최의창, 2012). 다양한 운동 종목을 문화 활동으로 인식하고 신체적 수행과 더불어 그것에 관한 지식을 쌓고 태도나 심성을 함양하여 운동소양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신체활동인 운동을 바르게 수행하는 능력과 기능인 ‘운동능’과 운동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습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인 ‘운동지’, 운동수행자의 마음의 자세, 심성적 자질의 ‘운동심’에 관한 것을 균형 있

게 함양해야만 마침내 올바른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동심이다. 운동심이란 운동수행자의 마음의 자세 및 심성적 자질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영성적인 발전도 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동심’은 ‘운동지’와 ‘운동능’을 이끌어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운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운동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운동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Whitehead, 1989). 최의창(2010)은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운동심’의 역할은 운동 수행자의 평생체육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Marsden & Wesson, 2007; Wright, 2004).

2. 골프소양

가. 골프소양의 개념

골프의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하고 있지만 골프소양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골프소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골프 규칙 집에 나와 있는 경기의 기본 정신을 통해 골프소양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

골프 게임은 다른 플레이어들을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있다.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들은 경기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언제나 절제된 태도로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것이 골프게임의 기본 정신이다(골프규칙, 2016, 경기의 기본정신).

골프의 전반적인 규칙과 대회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영국의 R&A와 미국의 USGA에서 발행하는 골프 규칙 집에는 경기의 기본정신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절제된 행동과 예의를 지키며,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기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 골프소양의 개념을 정리해 하면 골프소양은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고 코스를 보호하며, 정해진 룰을 잘 지키며, 스포츠맨십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골프소양은 어디까지나 골프 규칙 집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최의창, 전세명(2011)이 주장한 운동소양(運動素養)에 빗대어 골프소양의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골프소양은 골프의 다양한 기술을 알며, 골프에 관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골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골프소양은 골프를 잘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며, 골프를 좀 더 폭 넓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골프소양은 골프를 통해 ‘전인’을 육성하며,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인’은 “지덕체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최의창, 2009; Laker, 2001)이라고 한다. 이처럼 골프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골프에 관한 올바른 마음을 품고 있으며, 골프에 관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골프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골프에 관한 깊이 있는 생각과 다양한 시각으로 넓게 보면서 길러 질 수 있는 것이다.

나. 골프소양의 구성요소

골프를 안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기력에 필요한 기술만을 알아서는 안 된다. 골프의 기술적인 것과 더불어 역사, 문화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골프를 잘 안다고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골프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진정으로 골프를 제대로 안다

고 할 수 있겠다.

골프는 그 어떤 운동보다 매너와 규칙을 중시하는 ‘신사 스포츠’다. 그런데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볼을 좀 더 멀리, 똑바로 보낼까? 어떻게 하면 퍼팅을 잘 할 수 있을까? 등 골프를 잘 치는 방법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골프 실력이 아니라 골프 매너다. 그림 같은 샷은 탄성을 자아내게 할 수는 있어도 감동은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골프장에서의 감동은 서로를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유쾌하게 골프를 즐겼을 때 발생한다(조건진, 2008, p27).

대한민국 골프가 양적으로는 누구도 반박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력, 승패, 기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문화, 역사, 매너, 에티켓 등의 골프의 질적 발전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의창(2013)이 주장한 운동을 게임에 가두지 않고 운동이 우리 삶 속 전반에 걸쳐 넓고 깊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질인 운동소양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運動心)을 골프에 접목하여, 골프의 구성요소를 골프능, 골프지, 골프심으로 분류하여 찾고자 하였다. 골프를 제대로 알고 하기 위해서는 골프소양이 필요하다. 골프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골프를 잘 하는 능력, 즉, 효과적인 스윙으로 타깃 정확히 공략하는 능력과 트러블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린주변에서 핀을 공략하는 기술, 홀컵에 볼을 정확히 넣는 능력을 말하며, 두 번째, 효과적인 스윙을 구사하기 위한 이론, 방법과 게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룰에 대한 지식, 골프의 역사와 같은 골프의 전반적인 전문지식을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골프에 임하는 마음자세로서 골프가 룰과 매너, 에티켓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동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의 3가지, 골프능, 골프지, 골프심을 모두 갖추어야만 골프

를 온전히 한다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골프소양의 구성요소

현재 대한민국 골퍼들의 실력은 프로나 아마추어나 세계 최정상급이다. 여자선수의 경우 LPGA 대회마다 10위권에 절반이상 대한민국 선수들의 명단이 보일 정도며, 미국에서 하는 대회인지 한국대회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한국선수들이 상위권에 오르며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일본 여자프로골프 대회에서는 매년 상금 왕을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선수들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에도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기 위해 연습장마다 타석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는 골퍼들로 인산인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 세계 아마추어 골퍼들 중에 대한민국 골퍼들의 실력이 최상위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골퍼들의 실력은 최고다. ‘골프능’에 있어서는 최고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골프관련 지식인 ‘골프지’와 골퍼의 마음가짐인 ‘골프심’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이러한 분야의 노력과 연구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많은 골프관련 세미나와 학회에서는 ‘골프능’과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고 측정가능한 부분에 집중하여 수치로, 데이터로 실력을 향상 시키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골프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함양시킴으로서 ‘골프지’의 향상을 가져와야 골프를 하는 사람들, 선수, 아마추어 골퍼, 주니어 선수들의 지적 수준이 한층 높아져서 골프의 참 의미를 깨닫고 골프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골프 대회 중 메이저 대회는 무엇인지,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은 누구였으며, 골프코스의 탄생 배경과 변화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데, 클럽의 발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관한 지식을 쌓는다면 골프를 좀 더 이해하기 쉬워 질 수 있으며, 골프를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골퍼의 마음 자세, ‘골프심’을 함양하는 것도 골프를 좀 더 온전하게 받아 드릴 수 좋은 기회가 될 있다.

골프는 몸으로 스윙 메커니즘을 연마해 코스를 하나씩 공략하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형이상학적인 면을 가진 정신의 스포츠이다. 골프를 멘탈게임이라 하는 이유이다. 골프에서 육체 훈련과 기술연마가 우선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체득하라. 평상심을 가지고 부동의 마음으로 필드에 서라. 강신의 인생과 골프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이학오, 2008, p31).

골프에서 멘탈은 기술적 부분인 스윙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고 중요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골프에서 멘탈이 절반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신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 ‘골프심’이다. ‘골프심’은 골퍼가 마음자세를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 기능적인 면이 어떻게 변화 될 수 있는 가를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골프를 대하는 태도와 감정을 통해 골프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골프능’, ‘골프지’, ‘골프심’을 통해서 골프소양을 함양한다면 지금까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있던 골프를, 새롭게 정비하여 균형 잡힌 조화로운

모습의 골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운동소양과 골프소양의 인문적 접근

가. 운동소양 함양의 인문적 접근

국내에서 운동소양이라는 단어는 최의창(2010)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운동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통합적 체육(최의창, 2005)이라는 이름하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명칭으로 통합적 체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Margaret Whitehead, 2001, 2007, 2010). 통합적 체육은 단순히 몸을 사용하는 운동 기능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지식과 인성까지도 배울 수 있는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적 차원까지 가능하다(서장원, 2008; 진세명, 2010). 체육교육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크게 학문적 통합의 접근과 서사적 통합의 접근이 있다(최의창, 2007). 학문적 통합은 지금까지 스포츠 활동에서 지배적이었던 방식이었다.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등 운동과 관련된 지식들을 운동기능을 배울 때 함께 배워 나가자는 것이다. 서사적 통합은 학문적, 과학적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서사적 체험과 인문적 지혜를 운동기능과 함께 체험하는 것이다. 신체적 활동과 함께 운동을 간접적으로 다룬 철학, 문학, 예술, 역사, 종교적인 지식과 지혜를 맛보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에서의 서사적 차원(narrative dimension)이란 학문적, 개념적인 사고방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로, 체육활동에 들어있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체육의 영역이다.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지성, 감성, 인성, 덕성 등의 측면을 찾아내서 함양시키려는 노력이다. 체육활동의 서사적 차원은 스포츠 문학, 시, 음악, 미술, 철학, 종교 등의 인문적 언어와 사고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최의창, 2001; Minchew, 2002; Stinger & Reilly, 2004; Tixier y Vigil & Edwards, 2002). 최의창(2009, 2010b)은 “인문적 체육교육”(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이라는 철학적 사

고를 바탕으로 “하나로 수업”(Hanaro Teaching)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 체육에서 서사적 통합을 시도 해 왔다(최의창, 2009, 2010b).

“하나로 수업”은 스포츠의 기법적인 측면과 함께 스포츠의 정신, 전통, 안목과 같은 스포츠를 통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심법적인 측면을 서사적인 방식으로 통합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체육수업모형이다. 하나로 수업모형은 학교체육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다(문경남, 2017). 체육교육의 목적이 “전인” 성장을 위한 것이기에 이러한 “전인”으로의 성장을 위해 “하나로 수업”모형은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강나리, 2012;전세명, 2010; 천지애, 2013). 체육활동, 스포츠 경기를 통해 심법적인 측면을 객관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심법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을 올바르게 접한 사람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운동의 심법적인 부분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운동을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로 채워지는 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운동을 통해 분명히 우리 몸에는 운동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몸을 채웠을 것이다.

축구를 예를 들어 축구를 실제 경험하기 이전에는 볼을 차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골을 골대에 넣어야 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축구를 하고 난 후에는 볼을 차는 법을 알게 되고 골대에 골을 넣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골을 잘 넣기 위해서는 같은 팀과 볼을 주고받으면서 상대팀 진영으로 돌진해야 하는 패스의 원칙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축구 경기를 통해서 축구에 대한 기능적, 기술적 차원의 실력이 향상 될 수 있다. 그럼 기술적 차원 이외에 배운 것은 무엇일까? 기술적 차원 이외에 배운 것은 경기를 통해 페어플레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상대 팀을 존중하고 반칙을 하지 않으며, 넘어진 상대편을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말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기능적, 기술적 차원과 또 다른 모습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축구 경기를 통해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축구를 잘하건 못하건, 공격수건 수비수이건 말이다. 하지만 축구를 몸으로 하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도 있다. 축구의 역사와 문화, 철

학 등과 같은 문화적 차원의 부분 말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부분은 축구를 몸으로 체험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축구에 관한 서적을 읽고,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훌륭한 축구 선수의 자서전,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된다.

나. 골프소양 함양의 인문적 접근

골프소양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혹 서적으로 골프소양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만 이것 또한 골프소양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골프소양에 관한 연구를 최의창(2010)이 주장한 운동소양의 인문적 접근을 토대로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접근을 하려한다. 인문적 접근 중에 대표적인 서사적 통합을 통해 서사적 체험과 인문적 지혜를 골프기능과 함께 체험함으로써 골프소양 함양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골프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서사적 체험인 읽는 부분을 통해 골프의 철학, 문학, 예술, 역사, 종교적인 지식을 쌓으며, 그에 따른 지혜도 같이 체득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학”(virtue ethics)을 기반으로 한 서사적 통합은 서사적 형태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총체적 학습 경험을 돕는다(최병태, 1996; 최의창, 2011). 골프를 하면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서사적 형태의 자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느 스포츠 활동에서건 마찬가지로, 골프에서는 말로, 행동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설명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사적 차원(narrative dimension)을 통해 골프의 지성, 감정, 인성, 덕성 등의 측면을 표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차원의 접근은 우리가 골프를 통해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골프에서의 인문적 접근은 실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이론과 학문적 이론중심으로 골프를 이해하고자 하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통해 골프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골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넓은 생각은 우리가 골프를 바라

보는 시각을 변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골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은 뜻을 알게 해 줄 것이다. 골프는 단지 볼을 잘 치는 것만이 아닌 골프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이러한 여행이 단순히 기준타수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닌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이 주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배우고, 느끼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골프를 잘 하는 것만이 아닌 골프의 문화에 입문하여 골프의 내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골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골프에 대해 잘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균형 잡힌 골프를 더 깊이 있고 넓게 접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골퍼들이 골프를 잘 치는 것에만 집중하는 현실에서는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스윙 기술의 발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장비의 발달과 스윙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골프라는 스포츠의 숨겨진 매력을 접할 수 있는 시야가 가려지고 있는 것이다. 골프를 하면서 어려운 코스를 만나면 단순히 코스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그 코스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 졌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코스를 정복하고 싶어 할 뿐 그 코스에 담긴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골프를 단순히 하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이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문적 접근으로 가능할 것이다. 골프의 진정한 멋과 맛을 앎으로서, 골프의 온전한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이 골프소양인 것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골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자질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골프의 본질을 단적인 표현만으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위대한 플레이어들과 교습가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많은 얘기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고 따르고자 했던 그 옛날 성현들의 말씀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상에서의 비롯된 많은 사건들이 가르침으로 그리고 말씀이 되어 바른 소양 함양의 길잡이가 되어 왔듯 골퍼들에게는 일상의 일부인 골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껏 간과되어 온 바른 인문적 골프소양 함양의 태도, 방식이라 할 것이다.

Ⅲ. 읽는 스포츠와 읽는 골프

1. 읽는 스포츠

가. 읽는 스포츠의 개념

“읽는 스포츠란”란 스포츠에 관해 쓰여진 글을 읽는 것을 말한다(최의창, 2002). 읽는 스포츠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스포츠 기사에서부터 스포츠 잡지, 유명 선수들의 수필, 스포츠 소설까지 스포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러한 읽는 스포츠는 스포츠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스포츠를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읽는 스포츠는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는데 최의창(2002)은 ‘정보’, ‘확인’, ‘성찰’이라는 독특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다. 기술적 정보와 다양한 기록들, 그리고 역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며, 지금까지 실천하고 해오던 것에 대한 확인을 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경영, 광고, 영화, 과학 등 인문학과 거리가 멀 것만 같았던 분야에서 인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미숙, 2010). 근래에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 인문학 분야에서는 스포츠문학과 관련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스포츠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스포츠를 소재로 한 문학적 글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으면 사랑 받고 있다(최의창, 2010). 스포츠를 소재로 한 글들은 실제 하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 마치 직접 한 것과 같은 체험을 제공하며, 스포츠 활동의 의미를 자각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최의창, 2010). 스포츠는 신체활동을 통해 정서적 영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정서반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문학, 읽는 스포츠의 활용이 중요하다. 스포츠는 하는 것만으로는 그 스포츠의 내제되어 있는 것들을 깨닫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최의창, 2017). 고수만이 도달하는 기술적인 최상의 경지와 일류선수들만이 펼 수 있는 무대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경험 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읽는 스포츠를 통해서라면 고수가 경험하는 최상의 경지와 일류선수들이 뛰고 있는 무대를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고수, 일류 선수들도 스포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는 스포츠의 도움이 필요 하다.

스포츠를 온전히 숙달하고 이해하려는 이는 자신의 손을 잡고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스승이 옆에 없을 때, 읽는 스포츠는 언제나 그것을 가능토록 해준다. 기량의 세계가 얼마나 고고한지, 더 나아가 그것으로 발견 할 수 있는 의미의 우주는 얼마나 광활한지 알도록 안내한다(최의창, 산서의 세계).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연구실에서는 읽는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읽는 스포츠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 출판된 스포츠 관련 서적을 종목별로 정리 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서적은 850여권으로 경마, 골프, 낚시, 농구, 달리기, 등산, 럭비, 레슬링, 레이싱, 무도, 무용, 미식축구,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복싱, 사이클, 수상, 스케이트, 스쿼시, 스키, 스노보드, 신체, 씨름, 아이스하키, 암벽등반, 야구, 양궁, 요트, 육상, 조정, 철인3종, 축구, 탁구, 테니스, 트레킹, 하이킹, 핸드볼, 종합 등으로 종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읽는 스포츠는 세부분류를 통해 에세이, 교양, 소설, 자기계발, 시, 동화, 역사, 만화, 칼럼 등으로 추가 분류 하였다. 이러한 읽는 스포츠 목록을 통해 스포츠문학의 발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읽는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를 내면 깊숙이 파고 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읽는 스포츠의 종목을 살펴보면 인기종목의 출판이 두드러진다.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달리기, 등산 등 대중적인 분야의 종목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분야에서도 에세이, 소설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는 농구의 인기가 다른 종목의 인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경기장을 찾고,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 출판된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가 한국어로 출판되었다. 이노우에 다케히코가의 슬램덩크는 성별, 연령대를 분물하고 엄청난 관심과 인기가 있었다. 총 31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권별로 시기를 두고 출판되었다. 후속권이 나오는 날이면 전국 서점은 슬램덩크를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인산인해였다. 이러한 인기는 도서 분야에서 전례가 없던 상황이었다.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농구를 접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슬램덩크는 생생한 인물묘사 및 탄탄한 줄거리, 농구라는 공감대가 주요 인기의 비결이었지만, 주인공이 농구를 접하면서 내면의 변화와 농구의 진면목을 찾을 때마다 농구에 대한 깊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슬램덩크가 출판된 날이면 슬램덩크를 읽고 학교 농구골대 앞으로 하나둘 모여 슬램덩크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농구에 푹 빠졌던 시기가 있었다. 현재는 완결되어 출판이 종료되었지만 일본 오리콘차트에서 속편을 읽고 싶은 만화 1위로 선정되었으며, 후세에 전하고 싶은 만화 1위, 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만화 1위를 차지하였다. 만화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스포츠 관련 만화가 최고의 인기를 차지했다는 것은 스포츠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최의창(2014)은 읽는 스포츠가 우리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첫째, 리더십 함양이다. 훌륭한 감독들의 자서전을 통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 훌륭한 스포츠 감독들은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선수의 발전, 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감독들의 자서전은 어디서든 배울 수 없는 훌륭한 리더십 교육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치열한 경쟁과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에게 스포츠 소설은 재미와 흥미를 통해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읽는 스포츠를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읽는 스포츠는 도와 선의 발견

을 도와 줄 수 있다. 네 번째, 힐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독서가 힐링의 한 영역인 것처럼, 읽는 스포츠를 통해 힐링이 가능하다. 스포츠 소설, 스포츠 에세이, 스포츠 만화 등 읽는 스포츠를 통해 힐링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종교적 차원의 내면적 성장이다. 읽는 스포츠를 통해 영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영성이란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최의창, 2017). 여섯 번째,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가보지 못한 곳,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읽는 스포츠를 통해 가보고, 체험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은 스포츠를 좀 더 넓고 깊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곱 번째,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읽는 스포츠를 통해 정서적으로 성숙함은 스포츠를 시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시는 원래 음악, 무용과 함께 통합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언어적 측면만 분리되어 문학적으로 발전되어 시가 되었다고 한다. 여덟 번째, 진지한 독서는 사색을 낳고 그것은 지혜를 통해 철학적 사고를 갖게 만든다. 조지 쉬언은 달리기의 철학자라고 불리며, 그의 저서 ‘달리기와 존재하기’를 통해 달리기가 삶의 의미와 개인의 존재를 탐구 할 수 있는 성찰적 체험임을 증명했다. 아홉 번째, 학습의 도구로서의 읽는 스포츠, 운동만 좋아하는 아이, 공부만 좋아하는 아이, 이 둘을 읽는 스포츠로 공부와 운동을 같이 좋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공부만 좋아하는 아이에게 읽는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의 재미를 가르쳐주고, 운동만 좋아하는 아이에게 읽는 스포츠를 통한 독서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 하여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열 번째, 지혜의 발견이다. 다양하고 유익한 읽는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스포츠 종목 중에 삶과 비교하는 운동이 여럿 있다. 골프, 등산 마라톤 등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고 인내하며, 목표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위와 같이 읽는 스포츠를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고,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지친 심신에 힐링을 안겨

줄 수 있으며, 내면의 성장을 도와주고, 미지의 세계를 경험 시킨다. 또한 정서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 주며, 철학적 사고를 배양시켜주며,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5] 읽는 스포츠의 효과

나. 읽는 스포츠의 활용

인문적 접근을 통해 운동소양을 함양한다는 것은 기존에 운동을 단순히 하는 것,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운동과 관련된 문학, 예술, 종교, 철학, 역사의 인문적 지혜들을 습득함으로써 운동의 내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최의창, 2001). ‘인문적 지혜’란 체육활동에 관하여 밝혀진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적 지식을 말한다(조동일, 1997). 인문적 체험과 인문적 지혜를 통해 운동을 한다면 운동의 참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문적 접근 중에 서사적 관점에 중심을 둔 독서, 글 읽기는 인문적 지혜를 습득하고 스포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스포츠를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과 현상들과 연관 지어 새롭고 의미 깊

게 해석해 냄으로서 읽는 사람들의 안목을 확정 시켜주고 심화 시켜준다 (Jennings, 1995; Knhn, 2000; Linder, 1996; Sheehan, 1978).

책은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과거의 지혜가 함축된 보물이자 미래를 읽는 눈을 길러주는 지식의 결정체이다. 책을 통해 잊고 살았던 꿈을 찾기도 하며, 절망의 늪에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한다. 오늘 우연히 읽은 한 문장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책이란 것은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물이기도 하다. 또한 책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다양한 의인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이 삶에서 터득한 교훈과 깨달음은 물론이거니와 지식까지도 전달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놀라운 발전으로 독서를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 기존에 종이를 넘기며 읽던 것을 화면을 통해서 읽으며,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을 통해서도 독서를 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책을 모바일을 통해서 다운받아 읽을 수 있는 시대이다. 또한 정보 통신의 발달은 독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무겁고 사색을 필요로 하는 독서가 아닌 가볍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독서를 한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간단한 글과 함께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변화되는 독서방법의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독서의 목적이다. 독서는 정보를 얻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독서는 운동에서도, 골프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운동의 문화, 역사, 철학 등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게 된다. 역사서를 읽으며 운동을 존중 할 수 있게 되며, 문화관련 서적을 읽으며 운동의 다양한 면을 접하게 되며, 운동선수의 자서전을 읽으며 철학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골프에서도 서적을 통해 문화, 역사, 철학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심지어 기술까지도 배울 수 있다. 책은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가장 체계적으로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나 다름없다. 그리하여 배움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

지며, 책을 통해서 위대한 스승과의 인격적 만남을 이룰 수 있다. 독서는 상상력을 통해 저자와 독자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6]과 같이 독서를 통해서 운동의 문화, 역사, 철학, 지혜, 정보, 기술, 문화 등을 습득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의 효과는 스포츠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스포츠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림 6] 독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위와 같이 독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이외에 독서를 통해 교양(敎養)을 쌓을 수 있다. 교양을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품격이나 품위를 의미 할 수 있으며, 지식이나 성품을 말한다(이삼형, 2017).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교양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가장 체계적으로 담겨있는 문화유산이므로 우리의 배움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책을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과 인격적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 행위는 훌륭한 인격과의 창조적 만남이며, 상상력을 통해 독자와 저자간에 이루어지는 무궁무궁한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가다듬고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게 된다 (김영, 1998).

최의창(2005)은 [표 3]과 같이 학습태도와 사고성향에 따른 운동기능 및 스포츠 학습유형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배우는 이가 행동적인 측면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분석적, 통찰적)와 배우는 이가 학습의 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수용적, 창의적)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학습유형을 모범형, 모방형, 개발형, 창조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3]

[표 3] 학습태도와 사고성향에 따른 학습유형

학습태도 사고성향	수용적 Receptive	창의적 Creative
분석적 Analytical	모범형 (적극적 모방) 자기판단보다는 지도자지시 초보단계 설명중심의 기능서적 지도자와 경험적 분석	개발형 (소극적 창작) 지도자지시보다는 자기판단 중급단계 학문적 이론서적 스스로 과학적 분석
통찰적 Intuitive	모방형 자기판단보다는 지도자지시 초보단계 자기느낌의 반추 및 음미 다른 학습자와 경험적 교류	창작형 지도자지시보다는 자기판단 고급단계 상상력과 인문적 지식 스스로 학습 및 반성적 유추

2. 읽는 골프

가. 읽는 골프의 개념

시대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골프관련 글들을 접할 수 있다. 각종 SNS를 통해 개인이 골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들이나, 신문, 잡지 등의 전문 기자, 칼럼리스트가 작성한 글 등, 특별한 노력 없이도 골프관련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골프에 관해 작성된 다양한 글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를 주제로 정식 출판된 서적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였다. 시중에는 골프관련 다양한 서적이 즐비하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골프관련 서적을 수백 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골프서적은 전문작가, 레슨프로, 현직 선수, 아마추어 골퍼 등이 작성한 서적으로서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골프서적을 본 연구에서는 ‘읽는 골프’라고 표현하였다. 읽는 골프란 골프관련 서적으로서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반디앤루이스, 영풍문고 등 오프라인의 서점들과 온라인의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도서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서적들을 말한다.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읽는 골프관련 서적은 현재 400여권 정도가 나와 있으며, 이 중에는 절판된 도서들도 여러 있다. 해외 원서들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서적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서를 제외한 국내 서적 및 번안된 골프서적으로만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반디앤루이스, 영풍문고를 답사하여 골프서적들의 출판 형태 및 진열 상태를 확인 하였다. 대형 서점일수록 골프분야가 별도로 분리되어 진열되어 있었으며, 적게는 100권, 많게는 200권까지 골프서적이 진열 되어있었다. [그림 7]과 같이 스포츠 서적 코너에는 타 스포츠 종목과 구분되게 골프 종목만 별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종목의 스포츠 서적보다 많은 양의 서적이 출간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구분은 읽는 골프서적 수요가 현저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림 7] 골프 서적 코너



[그림 8] 가판대 위의 골프 코너

[그림 8]은 가판대 위에 진열된 읽는 골프다. 서점에서 가판대 위에 책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책을 찾는 수요자가 많다는 걸 증명한다. 읽는 골프의 경우에는 다른 스포츠 서적과 다르게 골프라는 종목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가판대 위에는 입문을 위한 초보가이드부터, 골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 서적까지 진열되어 있다.



[그림 9] 골프 서적

위의 [그림 9]는 읽는 골프 중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서적들이다. 캐디, 잔디관리, 마케팅 등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이 출판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었으며, 골프에서 쉽게 간과 할 수 있는 세부분야에 걸쳐 서적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 읽는 골프의 리스트

본 연구를 위해서 시중에 출판되었거나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던 서적들 중 250권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읽는 골프의 리스트를 보면 유명 선수들이 작성한 에세이부터, 골프기자의 취재일지, 전문 교습가의 레슨서적까지 다양한 서적이 출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담은 서적들인 것이다. 정확하지 않지만 14세기경 시작되었다는 골프가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읽는 골프의 수는 타 스포츠의 서적들 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읽는 골프를 정리 한 것이다.

[표 4] 읽는 골프의 리스트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1	감칠맛나는 골프 이야기	한희성		화남	수필
2	건강한 골프, 안전한 골프	앨런레비, 마크푸어스트	신준식	신희메드 싸이언스	의학
3	고덕호 실전 골프레슨	고덕호		삼호미디어	기술
4	고영분의 골프일기	고영분		한국능률 협회	수필
5	골퍼가 알아야 할 골프의 모든 것	토니 디어	김재열	고려닷컴	정보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6	골퍼와 백만장자	마크 피셔	김호	디자인하우스	자기계발
7	골퍼의 계급	김홍현		인터북스	수필
8	골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잭 캔필드	이상원	소프트골프	자기계발
9	골프 for 레이디	요시무라 후미에	서지희	리스컴	기술
10	골프 Golf : 프로 슛게임 따라잡기	이종민		아카데미북	기술
11	골프 IQ 높이기	데이비드 에어리스 외 1명	이종대	소프트골프	기술
12	골프 규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진하		오름	기술
13	골프 룰 이것만 알면된다 2016-2017	대한골프협회		골프아카데미	기술
14	골프 묵상	어너 북스	최의창	레인보우북스	종교
15	골프 성공학	홍경호		W미디어	수필
16	골프 스윙의 원리	김성수		전원문화사	기술
17	골프 스윙의 정석	닉 브래들리	박건호	샘터	기술
18	골프 시크릿	김진혁		북오션	자기계발
19	골프 싱글이 비즈니스 싱글이다	다이애나 홍		일상과이상	자기계발
20	골프 아나토미	크레이그 데이비스 외 1명	박영민 외 4명	푸른솔	의학
21	골프 없이는 못 살아	김재화		미래지식	수필
22	골프 영어	박경희		대광서림	정보
23	골프 유머	이찬성		스타북스	유머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24	골프 인 더 존	아드리안 프라이어 외 1명	이정철	아카데미 북	심리
25	골프 자신감의 게임	밥 로텔라	원형중	루비박스	심리
26	골프티칭 & 임팩트와 구질	이근택, 김해용 외 11명		골프아카 데미	기술
27	골프회원권 투자가이드	매경이코노미, 한국신용정보		매일경제 신문사	경영
28	골프,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남화영		넥서스BO OKS	정보
29	골프, 도를 만나다	김종업		대한미디 어	수필
30	골프, 마음의 게임	이종철		예문당	심리
31	골프, 멘탈 게임의 예술	조셉 패런트	조윤경	고려닷컴	심리
32	골프, 생각이 스윙을 바꾼다	이종철		예문당	기술
33	골프, 완벽한 게임은 없다	밥 로텔라	원형중	루비박스	심리
34	골프 원리를 알면 10타가 준다	김선웅, 김창국, 김태윤		대경북스	기술
35	골프, 정신력의 게임	스티브 윌리엄스 외 1명	임경빈, 조건진	네모북스	심리
36	골프가 내게 준 사랑과 친구	박한호		말글미디 어	수필
37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마이크 린더	최의창	대한미디 어	교양
38	골프가이드	도서출판 엠지 편집부		도서출판 엠지	잡지
39	골프교우 50년	신용남		삶과 꿈(L&D)	수필
40	골프는 거리다	김태균		집사재	기술
41	골프는 과학이다	오즈키 요시히코	이용택	아르고나 인	기술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42	골프는 세상을 바꾼다	최영정		삶과꿈(L&D)	교양
43	골프는 인생이다	성호준		중앙북스	골프장
44	골프는 인생이다	홍사중		이다미디어	교양
45	골프다모레	김효준		맑은샘	골프장
46	골프다이제스트	골프다이제스트 편집부		골프다이제스트	잡지
47	골프다이제스트 레슨	론 카스프리스크	김해천	싸이프레스	기술
48	골프도 독학이 된다	김헌		양문	기술
49	골프란 무엇인가	김홍구		한국경제신문사	기술
50	골프레슨	데이비드 리드베터		삼호미디어	기술
51	골프레슨의 도해	피터 크로카	김성현	명지출판사	기술
52	골프를 한다면 당신은 내 친구	하비 페닉	장근중	한국경제신문사	기술
53	골프매거진	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서울경제신문	잡지
54	탑 골프	탑골프 편집부		정민문화사	잡지
55	골프 손자병법	유응열		가림출판사	기술
56	골프심리 기술훈련	정청희		무지개사	심리
57	골프에서 길을 묻다	이학오		쌤앤파커스	심리
58	골프에서 배우는 경영	김광호		오늘의책	경영
59	골프에서 배우는 리더십	데이비드 코트렐	강주현	경영정신	자기계발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60	골프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성공전략	요아힘 스캄브락스	심재만	아카데미 북	경영
61	골프에서 배우는 성공전략 35	김진혁		책이있는 풍경	자기 계발
62	골프여행 중국어	배창렬		정진출판 사	정보
63	골프예찬	디팩 초프라	류가미	북북서	소설
64	골프와 법률	정억순		북스힐	정보
65	골프왕국의 절대법칙	최영정		삶과꿈(L& D)	수필
66	골프의 과학	마크 에프 스미스	김계동	명인문화 사	기술
67	골프의 기본 이론과 실제	김현덕, 박남환, 외 1명		녹문당	기술
68	골프의 기본과 연습방법	김동기, 길문섭		백만문화 사	기술
69	골프의 문제점과해 결책	던칸 레나드	임태열	아카데미 북	기술
70	골프의 법률상식 모든 것	김교창		청림출판	정보
71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유럽 골프 인문 기행	이다겸, 최영목		수류산방 중심	골프 장
72	골프장 CEO	안용태		골프전문 인협회	경영
73	골프장 경영개론	안용태		한국골프 전문인협 회	경영
74	골프장 레스토랑 경영	안용태		GMI한국 골프인재 개발원	경영
75	골프장 살인사건	에거서 크리스티	이은선	황금가지	소설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76	골프장 주변 맛집	한은구		클라이닉스	정보
77	골프장 평가와 투자분석	Arther E. Gimmy 외 1명	이성용, 김승환	부연사	경영
78	골프장에서 하는 유머	김이리		지식서관	유머
79	골프장으로 간 밀레와 헤르만 헤세	이종현		황금물고기	수필
80	골프장의조직과리더십	안용태		GMI골프그룹	자기계발
81	골프저널	골프저널 편집부		골프저널	잡지
82	골프천재 탄도	반조 다이치		대원	만화
83	골프컨디셔닝	신준수, 백선경 외 3명		오성출판사	기술
84	골프콘서트, 인마이라이프	한용수		정은출판	수필
85	골프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	홍정균		시대인	경영
86	골프 포 위민	매경골프포위민 편집부		매경골프포위민	잡지
87	골프헤럴드	월간골프헤럴드 편집부		월간골프헤럴드	잡지
88	과학적 골프로 90타, 80타의 벽을 깨는 방법	라이프 엑스퍼트	윤광섭	집사재	기술
89	그래, 난 골프에 미쳤다!	오태식		매일경제신문사	교양
90	금지된 게임	댄 위시본	이시은	비즈니스맵	교양
91	기 골프로 싱글되는 법	정기인		조선일보사	심리
92	김초롱의 스윙	김초롱, 앨런 쉽닉	박신현	오블리제	인물
93	김현의 행복 골프 레슨법	김현		도서출판골통	기술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94	까치 이현세의 골프가 뒤킬래	박순표 글, 이현세 그림		새론피앤 비	만화
95	끝나지 않은 게임	게리 플레이어	김현주	휘슬러	인물
96	나는 어떻게 골프를 치는가?	타이거 우즈	원형중, 지현	황금가지	기술
97	나는 자치기 왕이다	표영호		아카데미 북	수필
98	나에게 맞는 골프는 분명 따로 있다	여민선		원앤원스 타일	기술
99	난 절대 지지않아	유상건, 김상호		미래를소 유한사람 들	인물
100	내 생애 최고의 골프	마이클 머피	민훈기, 강영열	미래를소 유한사람 들	수필
101	내 생애 최고의 골프레슨	골프메거진 편집부	김해천	삼호미디 어	기술
102	내 인생 최고의 경기는 지금부터	박지은, 정제원		중앙북스	인물
103	내 인생을 바꾼 일주일	데이비드 L. 쿡	김현정	민음인	소설
104	내안의 골프본능	김헌		예문당	기술
105	노 멀리건	주선태		집사재	소설
106	느낌 아는 이여사의 골프이야기	이영숙		타래	수필
107	니클라우스의 골프와 나의 인생	잭 니클라우스, 존 티켈	정미나	김영사	인물
108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방민준		서해문집	수필
109	달인이 된 골퍼	디팩 초프라	김재열	양문	자기 계발
110	당신도 라운드 할 수 있는 세계 100대 골프 코스	백상현		골프다이 제스트	골프 장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111	당신은 행복한 골퍼입니까?	제임스 라고넷	박주민	가람북	자기 계발
112	대통령과 골프	안문석		인물과사 상사	인물
113	대한민국 골프백서	골프존마켓 인텔리전스 팀		백산출판 사	정보
114	더골프	AMG 편집부		AMG편집 부	잡지
115	동영상 골프 가이드	김재환		넥서스BO OKS	기술
116	두려움 없는 골프	데이브 펠츠	박영민	푸른솔	기술
117	레드재킷	강명식		스마트비 즈니스	소설
118	레저와 골프	정효권		한올출판 사	기술
119	마인드 파워 골프 10계명	로버트 K 윈터스	안종철	고려닷컴	심리
120	마지막 라운드	제임스 도드슨	정선이	아침나라	소설
121	매너골프로 승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조건진		웅진리빙 하우스	교양
122	멀리건 이야기	켄 블랜차드 외 1명	조천제, 김윤희	21세기북 스	소설
123	메커닉 골프	황인승		대한교과 서	기술
124	명상골프	방민준		화남출판 사	종교
125	모든 샷에 집중하라	피아 닐슨, 린 메리엇	원형중	루비박스	심리
126	모든 아이들 안에 타이거가 산다	루디 듀란. 릭 립시	최우열	매일경제 신문사	기술
127	몸 망치는 골프 몸살리는 골프	신임호, 나영무		매일경제 신문사	의학
128	몸으로 익히는 골프	심성섭, 윤형기, 임진		숭실대학 교출판부	기술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129	무의식으로 스윙하라	김성수, 이영승		전원문화사	심리
130	박영진 프로의 주니어 골프	박영진		가림출판사	기술
131	박지은의 프리미엄 골프	박지은		랜덤하우스 스코리아	기술
132	배거 밴스의 전설	스티븐 프레스필드	최의창	두리미디어	소설
133	백악관에서 그린까지	돈 반 나타 주니어	정승구	아카넷	인물
134	버드피쉬	방민준		어젠다	소설
135	벤 호건 골프의 모든 것	데이비드 리드베터	원형중	루비박스	기술
136	벤호건 모던골프	편집부		전원문화사	기술
137	보기플레이어가 되는 비결	골프다이제트 편집부		골프다이 제스트	기술
138	본능적 감각으로 익히는 골프스윙	보브 토스키 외 1명	원형중	아침나라	기술
139	부부골프 통통통	박성훈, 황용오		퍼블리터	수필
140	비즈니스 골프	마이클 앤드류 스미스	한정은	인북스	자기 계발
141	비즈니스 골프라이프	앤드류 브드 외 1명	홍정희	한국능률 협회	자기 계발
142	빌 게이츠는 18홀에서 경영을 배웠다	데이비드 리네키	황정경, 김광호	리더스북	자기 계발
143	사랑과 골프	김홍구		글로벌세움	소설
14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를 해설집	R&A Rules LLC.	김동욱, 박종업	고려닷컴	기술
145	상식으로 정복하는 골프	이기윤		위드스토 리	수필
146	생각의 겹	이순숙		월간골프 헤럴드사	수필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147	세계 최고의 프로에게 배우는 golf tips	탐 베이커	장재관, 류재균	아카데미북	기술
148	세계의 명품 골프장	아담스콧 외 2명	조진경	월간사진	골프장
149	세상만사 골프만사	이상무		삼호미디어	만화
150	소렌스탐의 파워골프	아니카 소렌스탐	현윤진	넥서스	기술
151	손에 잡히는 골프 룰	박석원		꿈엔들	기술
152	샷게임 완전정복	골프다이제트 편집부		골프다이제트	기술
153	수다골프,수다인생	남경우		이서원	수필
154	스윙과 삶을 마음골프	김헌		위즈덤하우스	수필
155	스윙은 생각이다	이규승, 김도연, 외 3명		시간여행	기술
156	스윙플레이어의 원리	짐하디, 존 안드리사니	현준선	삼호미디어	기술
157	슬라이스 혹은 줄이는 골프테이핑	후지타 아키히로		골프아카데미	의학
158	시가 있는 골프	이종현		나눔사	교양
159	신이 주신 선물 골프 섹스 그리고 웃음	김재화		피오디월드	교양
160	신이내린 스포츠 골프 & 섹스	김영두		개미	수필
161	아마추어골퍼가 자주 하는 골프실수	이범주, 최웅선		그리고책	기술
162	아빠랑 골프치러 가자!	신동주		커리어북스	수필
163	아홉 번의 골프레슨	케빈 앨런 밀른	손정숙	황소자리	소설
164	알고 치면 더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임영창		문무사	정보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165	어프로치 & 퍼팅 레슨	이노우에 토오루	이근택	삼호미디어	기술
166	얼짱 프로 한설희의 쉽게 배우는 골프	한설희		아라크네	수필
167	여성을 위한 골프가이드 입문 편	요시무라 후미에	김민정	삼호미디어	기술
168	여성을 위한 골프레슨 110	하비 페닉	조명대	한국경제 신문사	수필
169	연습하기 싫으면 이것을 읽어라	골프다이제스 트 편집부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	기술
170	열아홉번째 그린	김영두		청어	교양
171	영혼이 있는 골프 인문학	이석광, 황복주		유원북스	교양
172	오늘 골프 어때?	김영두		집사재	수필
173	위대한 게임	조지 페퍼	양영주	북폴리오	수필
174	위대한 골퍼들	하워드 선스	원형중	조선일보 사	인물
175	위대한 도전	이철원		대한미디어	소설
176	위대한 선수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 했는가	지미 로버츠	나상현	미래를소 유한사람 들	심리
177	유머로 정복하는 골프	이기윤		위드스토 리	수필
178	이것이 골프 경영이다	존 안드리사니	한정은	큰나무	경영
179	이광희의 골프사랑 30년	이광희		골프다이 제스트	수필
180	이너골프로 10타 줄이기	티모시 켈웨이	김영규	아키온	심리
181	이상무의 왕초보 골프가이드	이상무		삼호미디어	만화
182	이현세 버디	이현세 그림, 최성현 글		중앙북스	만화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183	인생10년, 골프1년	장복덕		징검다리	수필
184	인생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 주는 골프레슨	데이비스 러브 3세	원형중	아침나라	인물
185	인생을 결정하는 퍼팅의 순간들	게리 플레이어	정미우	시그마북 스	수필
186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나쓰사카 켄	방한기	해누리	자기 계발
187	인체에 가장 잘 맞는 스킨골프	박길석		가림출판 사	기술
188	임경빈의 도끼스윙 다운블로	임경빈		MSD미디 어	기술
189	임진한의 골프가 쉽다	임진한		삼호미디 어	기술
190	잔디학과 골프장	김형기, 이상재		선진문화 사	골프 장
191	장고의 쪼루 인생 골프이야기	장복덕		징검다리	수필
192	장타가 뭐길래	윤재우		남강기획 출판부	수필
193	재밌는 골프, 맛있는 골프	이덕형		사람과책	수필
194	정아름이 알려주는 왕초보를 위한 친절한 골프교과서	정아름		북오션	기술
195	젠 골프	조셉 패런트	강주현	한문화	심리
196	주니어골프	아라이 신이치	차병기	고려닷컴	기술
197	주말골퍼, 똑바로 멀리치기!	오태식		매일경제 신문사	교양
198	주부9단 골프9단 되다	김성현, 이남주		매일경제 신문사	기술
199	진짜 멋진 캐디 진짜 평범한 캐디	이경원		집사재	자기 계발
200	처음 배우는 골프	우에무라 케이타	신정현	싸이프래 스	기술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201	천국에서의 골프	밥 미첼	김성	문학동네	소설
202	초보에서 싱글로 가는 골프이야기	김방출		무지개사	기술
203	초월의 길, 골프	방민준		화남	수필
204	최고의 인생을 위한 게임	도널드 맥휴	최종욱	책이있는 마을	자기 계발
205	최혜영의 반대로 하는 골프	최혜영		시공사	기술
206	최혜영의 손이 편한 골프	최혜영		시공사	기술
207	캐디 시크릿	그랙 마틴	김상호 ,이선영	미래를소 유한사람 들	인물
208	코리안 탱크 최경주	최경주		비전과리 더십	인물
209	클럽피팅	박영진, 전재홍 외 5명		대한미디 어	클럽
210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	알렉스 트레스니오프 스키	김원호	북@북스	자기 계발
211	토탈 골프	마이크 애덤스, 외 2명	김재홍	국일미디 어	기술
212	톱프로 톱레슨	송하철		아카데미 북	기술
213	티칭프로 의사의 골프 처방전	송태식		힐링앤북	의학
214	파이널 쿤 신지에 골프로 비상하다	신제섭		민음인	인물
215	퍼팅, 마음의 게임	밥 로텔라	원형중	루비박스	심리
216	퍼팅으로 10타 줄이기	나일주		동아일보 사	기술
217	페어웨이에서 천국까지	인북스 편집부		인북스	유머
218	펜 들고 골프장에 가다	한국골프칼럼 니스트협회		말글미디 어	수필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219	프로골퍼 양용은의 초보 골프 레슨	양용은		경향미디 어	기술
220	프로골퍼도 몰래보는 골프책	오즈키 요시히코	이용택	봄봄스쿨	기술
221	필드에서 읽는 골프책	김기호		스마트비 즈니스	기술
222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	트레이시 섬너	은석준	참술	클럽
223	하느님, 내게 골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이레	교양
224	하루 3분 골프 레슨	이종달		아이디어 스토리지	기술
225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하비 페닉	김원중	W미디어	기술
226	한국의 골퍼들	한은구		프롬북스	교양
227	한권으로 읽는 영미골프문화사	김세기, 황경숙		경상대학 교출판부	정보
228	헤밍웨이, 골프 챔피언 되다	마이클 베런	김수련	북갤럽	소설
229	화장실에서 읽는 골프 책	화장실 독서가 협회	문은실	보누스	정보
230	108mm 홀컵을 정복하다	곽영안		다할미디 어	인물
231	10년 젊어지는 골프	서경묵		아주좋은 날	의학
232	126타에서 70타까지	박경호		KPGS(케 빈박골프 스쿨)	수필
233	18홀	송평		이케이커 뮤니케이 션	수필
234	18홀에서 나를 이기는 마음의 기술	제임스라고넷	박주민	가람북	심리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235	18홀의 기적	마인네즈		문피아	소설
236	19홀 맛집 기행	조영훈		국일미디어	정보
237	6 SIGMA on the GREEN	포레스트 브라이포글 3세 외 1명	한국능 률협회 컨설팅	위즈덤하 우스	경영
238	60일간의 미국 골프횡단	최금호, 설병상, 외 2명		푸른영토	골프 장
239	Breaking 100-90-80	골프다이제스 트 편집부		골프다이 제스트	기술
240	Cure Slice & Power Up	골프다이제트 편집부		골프다이 제스트	기술
241	Dr. GOLF MANN	랄프 만, 프레드 그리핀	원형중	하우투골 프	기술
242	Going Single	골프다이제스 트 편집부		골프다이 제스트	기술
243	GOLF 교정바이블	헝크 헤이니	장석기	랜덤하우 스코리아	기술
244	JTBC 골프매거진	JTBC GOLF 편집부		JTBCGOL F	잡지
245	kpga 티칭 매뉴얼	한국프로골프 협회		두산동아	기술
246	Lesson Bible	부치하먼, 데이비드 리드베터		골프다이 제스트	기술
247	NEW 골프바이블	스티브 뉴웰	최대혁 외 2명	대한미디 어	기술
248	PGA 골프 클리닉	릭 마티노, 돈 웨이드	이우석	한국경제 신문사	기술
249	POWER 골프 이야기	박찬희		무지개사	기술
250	Private Lessons	서울경제신문 사 편집부		서울경제 신문사	기술

다. 읽는 골프의 장르

읽는 골프의 리스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읽는 스포츠 중에 읽는 골프의 수가 다른 종목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읽는 골프관련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읽는 골프 중에는 기술적인 서적들도 있지만 골프의 다양한 면을 소개하는 서적들도 많다. 심리, 수필, 역사, 소설 등 다양한 분류의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250권의 읽는 골프를 중심으로 읽는 골프를 크게 3가지로 구분 하고 그에 따른 장르를 구분 지었다.



[그림 10] 읽는 골프의 분류

첫 번째, 대분류로는 기량향상(Performance)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기술, 심리, 의학, 클럽 부분 및 두 번째, 골프라는 스포츠를 문화적 현상의 시각에서 서술한 수필, 인물, 소설, 교양, 잡지, 골프장 등의 문화이해(Culture)와 관련 된 부분이다. 세 번째, 골프를 다양한 차원에서 변용 가능한 부분인 경영, 자기계발, 정보, 만화, 유머, 종교 등의 확장변용(Application)으로 구분 하였다.

1) 기량향상(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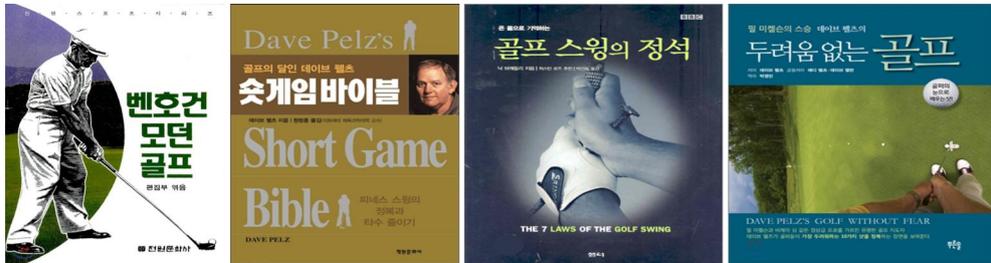
첫 번째, 기량향상과 관련된 장르다. 성적, 성과와 관련된 읽는 골프의 장르로는 기술, 심리, 의학, 클럽 부분이 있다. 기술, 심리, 의학, 클럽의 경우는 모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읽는 골프이다. 정확한 기술과 안정적인 심리상태, 강인하고 부상방지를 위한 의학적 방법,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한 클럽의 제작을 다루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1) 기술

기술부분의 읽는 골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하였다. 가장 많이 출판된 레슨 서적들과 함께 경기방식에 관한 룰에 대한 서적들을 기술부분에 분류하였다. 기술부분의 서적들에는 골프 스윙에 관한 레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별, 동작별, 신체적 부분에 초점을 맞춰 레슨을 하는 경우의 서적들이며, 간혹 성별, 연령별에 맞춘 레슨서적도 있다. 상황별, 동작별 서적들의 내용은 스윙, 샷게임, 퍼트, 비거리, 연습방법, 코스공략을 주제로 하여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인체공학, 물리학, 필라테스의 관점으로 스윙동작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스윙방법에 대하여 서술한 서적들도 있었다.

기술부분에 골프 룰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시킨 것에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골프경기에서 플레이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룰이기 때문에 기술부분에 포함 시켰다. 골프 룰은 R&A와 USGA를 통해 3년 주기로 개정된다. 그에 따라 3년마다 개정된 룰에 관한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골프는 심판 없이 경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룰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보다 쉽게 룰을 알 수 있도록 그림, 일러스트, 만화 형식으로 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서적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골프 룰이 3년마다 개정되면서 골프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선수들과 골프업계 관

계자들은 룰의 계정에 의해 경기방식 및 장비의 사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있어 룰은 절대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그림 11] 기술 부분의 읽는 골프

기술부분의 읽는 골프서적들은 대부분 현직 교습가들이 지은 서적들이 많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다양한 환경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았으며, 때로는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술서적의 저자들 중에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골프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노하우를 기록한 기술 서적인 것이다. 이러한 읽는 골프는 일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서적들보다 인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변상련이라는 말처럼 아마추어의 마음은 아마추어가 안다고 전문 교습가의 말보다 본인들의 고충을 더 잘 집어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심리

‘골프는 멘탈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골프는 작은 볼을 클럽을 이용해 치고, 클럽을 이용해 볼을 홀컵에 넣는 동작을 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스포츠이기에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읽는 골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 훈련을 위한 방법이며, 둘째가 불안정하고 나약해진 심리적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며, 셋째가 심리를 통한 궁극적 목표인 실력 향상을 다루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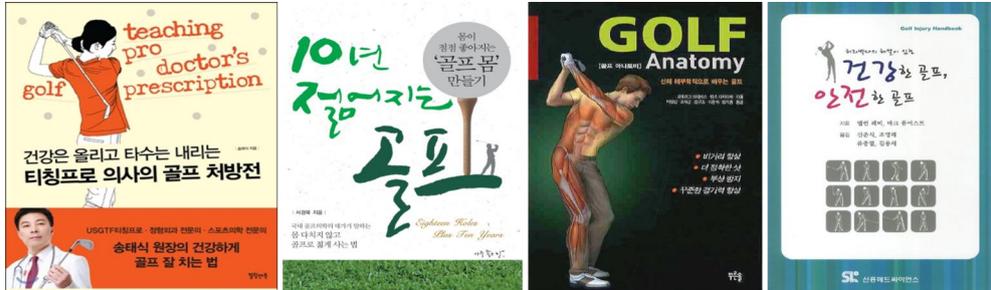
[그림 12] 심리 부분의 읽는 골프

첫 번째, 압박감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훈련의 내용으로는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확신을 갖기 위한 방법,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의 내용을 가지고 압박감 속에서 일관된 행동의 수행을 위한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불안정하고 나약해진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두려움을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심리를 통한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체의 반응이 과학적으로 증명 할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에 의해 급격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3) 의학

스포츠 활동은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이다. 스포츠를 하면서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것이다.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을 담당하는 부분이 의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학 분야를 분류하

면서 건강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을 의학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3] 의학 부분의 읽는 골프

읽는 골프로서의 의학 분야는 아직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간혹 출간되는 의학 분야의 읽는 골프들은 깊이 보다는 다양성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골프를 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체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골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방지 및 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전부이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의학적,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깊이에 대한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

(4) 클럽

과학의 발달에 편승한 골프장비의 발전으로 선수들, 골퍼들의 기량이 어느정도 향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드라이버 비거리에 비해 일정거리 더 나가고 아이언의 방향성이 향상되어 목표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체험 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럽의 발달은 골퍼들에게 분명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읽는 골프로서 클럽관련 분야의 서적들을 살펴보면 클럽 피팅과 클럽 제조사의 역사에 관한 서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클럽 피팅에 관한 서적에서는 골퍼에게 맞는 클럽의 선택 방법과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고 있다. 이러한 피팅 정보는 골퍼에게 클럽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 시

키고 있다. 또한 클럽 제조사의 역사서에는 골프클럽에 관한 전반적인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 퍼터의 발달과정에서부터, 아이언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럽에 관한 이야기가 시대별로 나열되어 있다.



[그림 14] 클럽 부분의 읽는 골프

2) 문화이해(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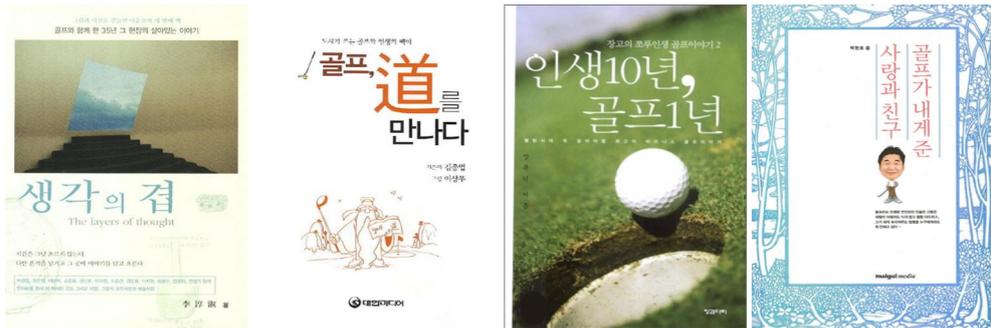
두 번째, 문화와 관련된 장르다. 읽는 골프에서 문화와 관련된 항목을 수필, 인물, 소설, 교양, 종교, 골프장, 잡지로 구분하였다. 골프의 역사가 길고 단순히 하는 것을 넘어 골프를 다양한 접근으로 바라본 것들이다.

(1) 수필

읽는 골프에서 수필의 영역은 특정 주제를 분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술한 서적들이 많다.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선수에서부터 전문 교습가, 아마추어 골퍼까지 골프와 관련된 사람이 본인의 철학이나 경험을 통대로 골프관련 글을 서술하였다.

철학, 삶, 도(道), 유머 등 다양한 골프의 생각을 본인의 관점에서 작성한 수필은 다른 사람이 골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유명 선수들의 수필은 골프에서 최정상에 올랐을 때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을 전달해 줌으로서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

계를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또한 골프를 ‘도’로써 바라보는 수필들은 골프가 단지 하는 운동이 아니라 깨우침을 주는 운동으로서 골프의 본질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림 15] 수필 부분의 읽는 골프

삶의 관점을 담은 수필들은 골프를 통해 삶의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골프가 심판이 없는 운동인 것처럼 삶에서도 심판이 없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시련, 고통들을 본인의 앞날을 위해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2) 인물

읽는 골프의 문화영역에서 인물에 관한 서적들을 살펴보면 유명 선수들의 일대기와 성공담을 다룬 서적이거나 특정 직위의 사람들이 골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물에 관한 분류는 수필부분과 중복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저자의 경험적 생각에 기초한 글은 수필로 분류 하였고, 지은이의 경험적 결과를 포함한 서적이면 인물로 분류 하였다. 읽는 골프의 인물 분야의 서적들은 지은이의 경험적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투어무대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역대 대표 선수들은 골프를 어떻게 했는지, 역대 최고의 프로선수들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대한

선수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골프의 변천사 및 다양한 사람들이 골프를 어떻게 접해왔는지 알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림 16] 인물 부분의 읽는 골프

(3) 소설

문화영역 중에 소설 분야는 추리, 판타지, 종교, 철학, 삶, 유머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소설이라는 영역은 내용에 제한이 없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골프의 소설 부분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 되어있다.

소설 부분에서는 삶에 대한 분야가 가장 많다. 골프를 통해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삶과 골프를 연결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은 추리 부분이다. 골프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이다보니 추리를 통해 골프를 상상력 있게 풀어나가고 하고 있다. 철학 부분에서는 골프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멋진 골프라는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서적도 있다. 가장 멋진 골프라는 잘 치는 것,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만이 아닌 골프 본연의 모습인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에 수궁하며, 다양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림 17] 소설 부분의 읽는 골프

(4) 교양

문화영역에서 교양을 빼놓을 수 없다. 교양이라는 것은 지식으로서, 골프에서는 골퍼가 알아야 할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라 말할 수 있겠다. 골퍼가 알아야 할 교양지식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읽는 골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읽는 골프 모두가 교양 지식 일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분류한 교양 부분은 시, 에피소드, 매너 등으로 분류 하였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너, 에티켓 영역이다. 골프 룰 북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티켓이다. 골프규칙 1장 에티켓 : 코스에서의 행동을 보면 골프 게임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의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코스에서 항상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라고 나와 있다.



[그림 18] 교양 부분의 읽는 골프

(5) 잡지

문화 부분에 잡지를 포함한 것은 잡지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레슨, 뉴스 등 골프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이 잡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잡지를 문화 부분에 포함 시켰다. 본 연구에서 취합한 읽는 골프의 잡지 부분은 월 1회 출판되는 잡지를 선정하였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잡지들로 선별하였다. 국내 골프 잡지의 경우 미국의 판권을 구매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잡지명과 일정 부분의 기사를 제공 받고 추가적인 국내 기사를 작성하여 내용을 채우는 형식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외 골프관련 이슈와 대회 소식, 골프 업계 인물 인터뷰, 업계 동향, 국내 선수 밀착 인터뷰, 세계 각지의 골프장 등 다양한 소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골프의류산업의 호황으로 패션 지 같은 모양새를 한 골프잡지들도 여럿 있다. 잡지를 통해 매월 새로운 골프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다른 읽는 골프보다도 인기도가 높다.



[그림 19] 잡지 부분의 읽는 골프

(6) 골프장

골프장과 관련된 읽는 골프는 크게 코스관리와 골프장에 대한 정보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에서 발간하는 월드골프에 따르면 전 세계 골프장 수는 3만 50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만 골프장 수가 500여개에 달하며, 미국이 1만개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3000개 정도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골프장의 수가 많다보니 골프장 관련 읽는 골프의 수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림 20] 골프장 부분의 읽는골프

골프장 관련 읽는 골프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골프장을 답사 후 기행문 형식의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골프의 발상지인 유럽의 골프장들을 답방한 내용이나 미국 골프회단을 주제로 담은 내용들은 가보지 못한 골프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읽는골프 자료이다.

3) 확장변용(Application)

세 번째, 확장변용과 관련된 장르다.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확장변용의 부분은 골프장 경영에 관련된 내용과 골프를 통한 자기계발, 골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만화, 골프와 관련된 유머, 골프의 다양한 정보로 구분 지었다.

(1) 경영

읽는골프에서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골프장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효과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법과 골프장 회원권 관련 내용들이 많다. 골프장은 다양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

다. 레스토랑, 골프코스, 카트, 캐디들까지 운영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골프장 내장객수가 줄어들어 영업, 마케팅 분야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영에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서적들이 경영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21] 경영 부분의 읽는 골프

(2) 자기계발

골프를 인생과도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골프에는 희로애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골프를 자기계발의 영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읽는 골프의 한 분류로 자기계발을 선정하게 되었다. 자기계발 부분의 내용으로는 영혼의 성장, 리더십, 삶, 지혜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인도 뉴델리 태생의 하버드 대학 의학박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인 디팩 초프라도 골프관련 자기계발서인 ‘달인이 된 골퍼’를 저술하였다. 동양철학과 서양의학을 한데 아우른 디팩 초프라의 독창적인 저술 방식을 통해 인생의 승자가 되는 법칙을 골프를 통해 전달해 주고 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격을 쌓는 일이다.
골프는 심판 없이 철저히 자신을 상대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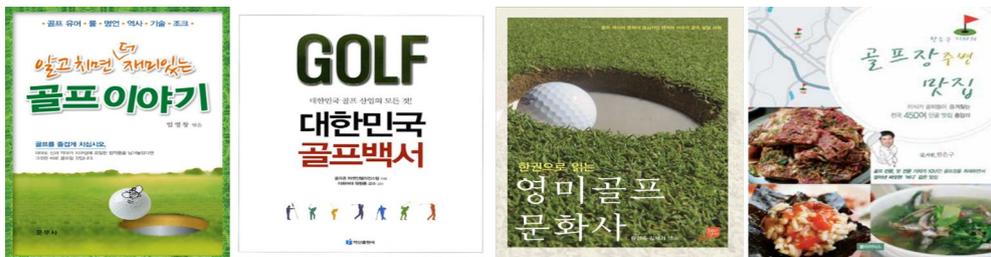
에 인격이 모두 드러난다. 필드에서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좌우되므로 목표가 없는 골퍼는 길을 잃는다 (나쓰사카 켄,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中).



[그림 22] 자기계발 부분의 읽는 골프

(3) 정보

골프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대 모아놓은 영역이다. 읽는 골프에서는 법률, 상식, 역사, 음식, 회화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을 정보로 분류 하였다. 골프의 역사가 깊다보니 다양한 내용의 정보들이 있다. 그 중 역사서들은 골프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음식의 경우 골프장이 수도권 외각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후 또 다른 즐거움인 맛있는 식사를 위한 골프장 주변 맛 집을 소개하고 있는 서적들이다. 또한 삶의 교훈을 주는 서적들도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골프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읽는 골프라 할 수 있겠다.



[그림 23] 정보 부분의 읽는 골프

(4)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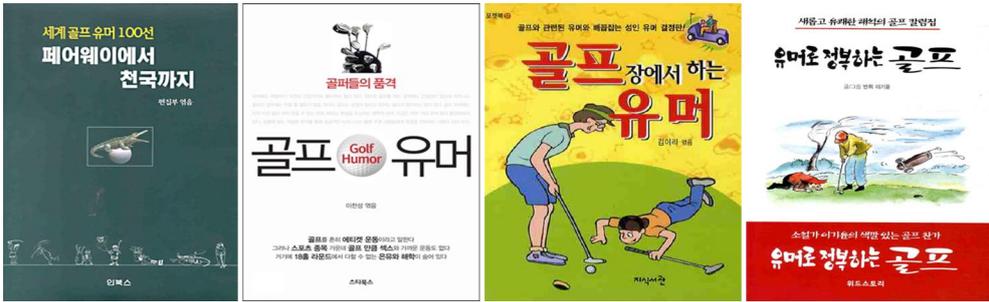
골프의 다양한 접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인 만화영역이다. 많은 스포츠 만화가 있지만 골프 종목은 그 종목을 잘 알아야만 골프의 내면에 담겨진 이야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만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꺼라 생각 든다. 골프관련 만화가 여러 종류 있지만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서적들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만화를 선별하였다. 골프만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골프입문의 편의성을 위해 만화로 표현한 내용도 있으며, 골프를 소재로 사회적 풍자를 그린 만화도 있다. 또한 골프의 전반적인 내면의 내용을 그려낸 만화도 눈에 띈다. 골프관련 만화는 대부분 애니메이션이 발달한 일본에서 만들어져 번역서로 나온 책들이 많다. 국내에서는 이현세, 이상무화백의 골프만화가 대표적이다.



[그림 24] 만화 부분의 읽는 골프

(5) 유머

골프장에서 18홀을 라운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볼을 치는 시간은 불과 30분이 넘지 않는다. 그럼 3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 동안은 동반자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골프의 현상으로 인해 골프 라운드는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 4시간 동안 동반자들과 얼마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가는 골프를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림 25] 유머 부분의 읽는 골프

이러한 현상으로 읽는 골프에서 유머부분을 한 영역으로 채택했다. 그다지 많은 유머관련 서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4시간동안 동반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기애 선정 하였다.

(6) 종교

읽는 골프의 확장변용의 영역 중에 종교 분야를 두었다. 사람은 간절한 순간에 신을 찾는 경우가 많다. 골프라는 스포츠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측정하는 종목이기에 늘 자신의 최고 기록에 도달 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 위기의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하며, 평정심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명상이나 기도를 하기도 한다. 읽는 골프에서 종교관련 분야가 많지는 않지만 골프가 정복하지 못하는 스포츠로서 많은 이들이 종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림 26] 종교 부분의 읽는 골프

골퍼의 기도

그 어떤 것도 오늘
내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 주소서.

첫 번째 티에서의 소동,
함께 치는 파트너와의 잡담,
내 뒤에서 참을성 없이 기다리는 사람,
그 어떤 것도 내안의 고요함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해 주소서.

활짝 트인 하늘의 널찍함과
골프장의 생김생김을 온몸으로 느끼고,
이런 기후와 저런 날씨 속에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알알이 즐기도록 해 주소서.

다른 이가 플레이 할 때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촉촉이 젖은 땅바닥의 냄새를 가득히 호흡해 들이고,
얼굴을 두드리는 바람의 감촉을 찬찬히 느껴 맛보며,
페어웨이 옆으로 흐르는 개울소리를
청명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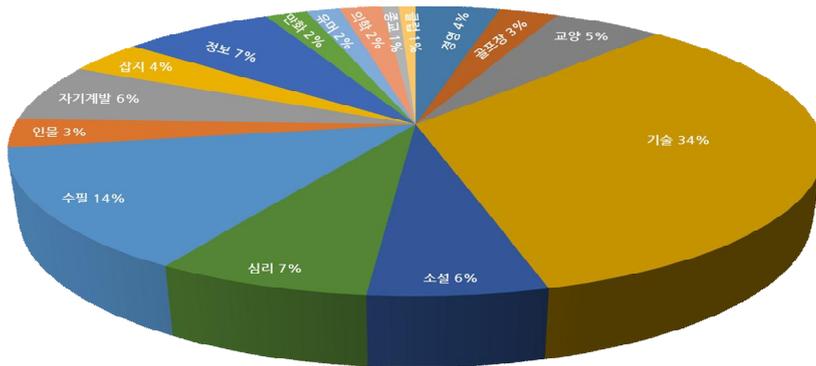
클럽헤드를 휘두를 때,
나 자신을 온전히 믿고 스윙하도록 해 주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끼어들어 근육을 굳게 하고 샷을 망치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스윙의 힘과 흐름을 느끼도록 해 주소서.

‘활시위 한 번에 한 번의 삶’이라고 선을 닦는 공사가 말했듯,
한 샷, 한 샷이 게임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 주소서.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어떤 구속도 없는 곳에서
이렇듯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귀중한 행운을
맞보는 것이기 때문이오니,
점수와 시합의 승패는 잊어버리고
오직 매순간 플레이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점수가 좋았니 시합에 이겼니 하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플레이 했는가 이기 때문이오니
(조셉 맥러클린, 골프의 선).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250권의 읽는 골프를 총 16가지, 기술, 심리, 의학, 클럽, 수필, 인물, 소설, 교양, 종교, 골프장, 잡지, 경영, 자기계발, 만화, 유머, 정보로 나눠 분석하였다. 250권에서 장르별 분포도는 아래 [그림 2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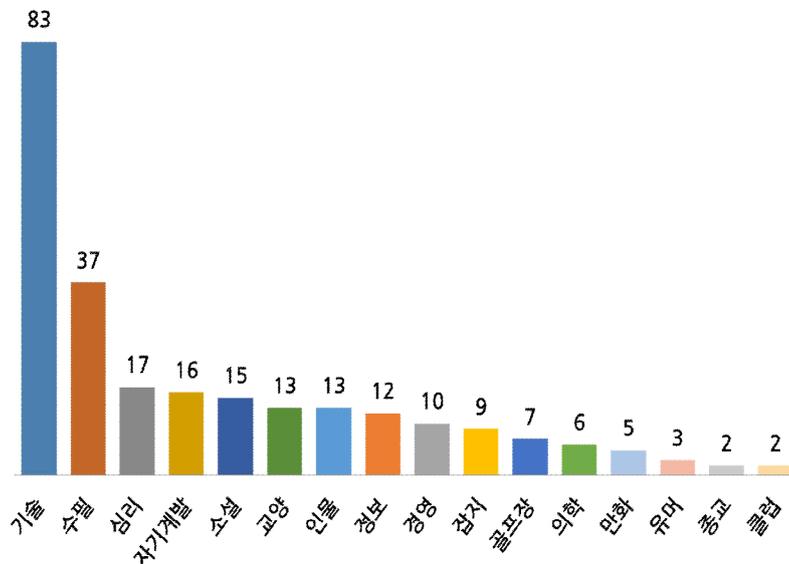
[그림 27] 읽는 골프의 분포도

전체 250권 중 기술 장르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필이 14%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심리와 정보 분야가 7%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기계발과 소설분야가 6%대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양, 잡지, 경영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분포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중의 골프관련서적의 주제가 골프의 기술영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읽는 골프를 통하여 골프를 이해하고 배우는 독자의 수요가 기술에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적 출간업체는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머리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잘 알려진 골프일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골프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머리에는 골프의 한 부분만 생각을 할 뿐 다른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으니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골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만무하다.

과거 골프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골퍼들이 기술적인 책 외에 그들의 골프인생을 얘기하는 책들을 집필하는 이유는 왜 일까? 많은 일반 골퍼들이 많은 위대한 골퍼들의 기술 외적인 다른 무엇인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골프에게도 적용되어 체력, 장비 등의 하드웨어 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골프에서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인문적 골프를 통한 완전한 골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8] 읽는 골프의 장르별 수

[그림 28]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250권 중에서 장르별 권수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 분야의 읽는 골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50권 중 기술 분야가 84권, 수필 분야가 34권, 심리, 정보 분야가 각각 18권, 자기계발 분야가 16권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적은 분야는 종교, 클럽 관련 서적으로서 각 2권씩 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3. 대표적 읽는 골프의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읽는 골프 중에 장르별 대표적인 서적들을 분석해 보았다. 대표적인 서적들의 선정 방법은 현직 교습가들의 추천 서적들과 전국 서점의 판매량, 출간 된지 10년 이상의 서적들 중 장르별로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을 연구자의 판단 하에 선별하였다.

읽는 골프의 장르는 기술, 심리, 의학, 클럽, 수필, 인물, 소설, 교양, 종교, 골프장, 잡지, 경영, 자기계발, 만화, 유머, 정보로서, 총 16가지의 장르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가. ‘기량향상’ 읽는 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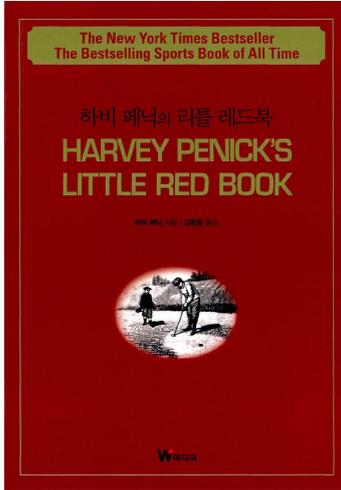
1) 기술

읽는 골프의 장르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술 서적이다. 유명 교습가, 프로선수, 아마추어 골퍼들이 본인만의 레슨 노하우나 경험담을 담은 서적이다. 기술 분야의 서적은 골프 스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이 가장 많았으며, 샷게임과 코스 매니지먼트 등 특정 부분을 다루는 서적들도 눈에 띄었다. 또한 주니어, 여성, 인체, 과학 등과 같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꾸며진 서적들도 있었다. 골프 기술을 스윙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체, 과학 등을 통해 스윙을 해석하는 부분이 실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레슨 서적의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하비페닉의 <리틀 레드북>과 데이브 펠츠의 <샷게임 바이블>이 있다. 두 권 모두 베스트셀러 작품으로서 현직 교습가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읽는 기술 서적이다.

하비페닉의 리틀 레드북

저자 : 하비 페닉 / 역자 : 김원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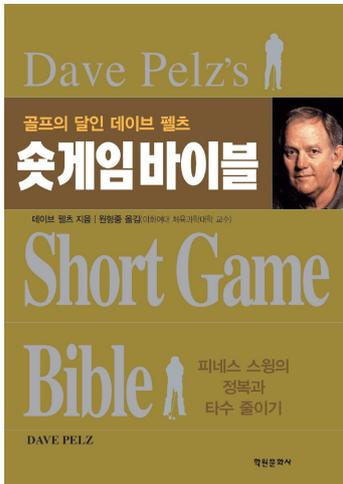
[그림 29]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하비페닉은 1980년대 대표적인 프로들의 골프 선생님이었다. 그의 레슨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동작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데 그의 특별함이 있다. 어려운 설명을 앞두고도 직접적으로 실용적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다. 요즘 레슨프로들은 본인만의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해 쉬운 것도 어렵게 보이려고 표현하지만 하비페닉은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지도한 프로들은 늘 그의 간단명료한 레슨에 빠져들어 골프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

비페닉의 <리틀 레드북>은 하비 페닉이 80년 동안 골프에 관한 기록을 노트에 적은 기록들이다. 이 서적은 80년의 골프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모아놓은 자료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에서는 특정 동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윙 중 고개를 들지 마라라고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한 하비페닉의 생각을 전달하며,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비페닉은 여덟 살 때부터 캐디 일을 시작하여 골프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골프에 관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결하고 직접적인,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다. 이러한 내용은 초보골퍼든 선수이던 간에 최선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골프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골프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만끽하게 된다. 특유의 정신력, 윤리관, 그리고 열성이 녹아져 있다. 프로 골퍼든 초보 골퍼든 상관없이 모든 골퍼에게 꼭 필요한 골프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골프의 고전이다.

숏게임 바이블

저자 : 데이브 펠츠 / 역자 : 원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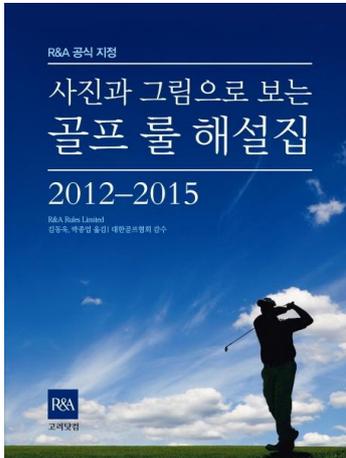
[그림 30] 숏게임 바이블

저자 데이브 펠츠는 세계적 골프 교습가로 골프 매거진의 기술 및 숏 게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펠츠 골프연구소를 창립, 골프게임의 정수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미전역에 4개의 골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15,000여 명의 아마추어 골퍼, 48명의 PGA 선수, 38명의 LPGA 선수들의 숏 게임 향상에 기여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골프 채널의 강습 프로그램인 ‘데이브 펠츠의 숏 게임 쇼’의 최고 인기 진행자이기도 하다. 전직 NASA의 물리학자로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스코어링 게임으로서의 숏게임을 강조하고 있다. <숏게임 바이블>은 데이브 펠츠가 다년간의 교습과 연구결과를 합한 서적이다. <숏게임 바이블>을 통해 많은 골퍼들에게 숏게임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숏게임이 단지 감각만이 아닌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주변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고 도표와 사진을 통해 숏게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기술 습득만큼 원리의 이해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골퍼들이 샷의 원인과 방법을 동시에 알 때 더 빠르고 완전하게 학습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직 NASA의 물리학자답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레슨을 하고 있으며, 골프에서의 스코어 관리, 게임에 대한 이해와 본질, 숏게임의 역학, 숏게임의 종류 등을 강조하며 숏게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다. <숏게임 바이블>을 읽고 있다면 기술서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연구논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리, 본질에 관한 부분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어나가는 방식이 논리정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골프 룰 해설집

저자 : R&A Rules LLC. / 역자 : 김동욱 외



골퍼들은 골프 룰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집>은 골프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과 운영을 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 지정 도서이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규칙에 대한 안내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집 (2012-2015)』. 이 책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골프 규칙을 담고 있다. 100장의 사진과 70장의 그림을 이용하여 골퍼들이 골

[그림 31]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집

프를 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벙커, 아웃 오브 바운드, 분실구, 언플레이어블 볼 등 골프 용어의 이해부터 골프 규칙을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경기에서 벌어진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골프룰은 2~3년마다 R&A와 USGA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경기시간, 흥미요소 등을 고려하여 룰을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반영된 골프룰을 숙지하는 것은 골프에 대한 흥미와 품격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스코어를 줄이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규칙의 명확성을 개선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벌타를 감소시켜 관련 상황과 확실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하게 변경되어 소개된다. 이처럼 골프룰을 잘 아는 것은 스코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8홀 동안 몰라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따진다면 한 라운드에서 3~5타는 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골프는 심판 없이 경기를 해야 하기에 룰에 관한 숙지가 매우 중요하며, 룰만 잘 알아도 골프경기를 좀 더 재미있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집>은 사진을 통해 다양한 상황별 쉽게 설명하여 골프 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 할 수 있는 서적이다.

2) 심리

골프에서 심리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가와 같이 심리 전담 상담사가 선수들과 같이 대회장에 찾을 정도이다.

읽는 골프에서도 심리 분야의 서적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50권 중에 18권의 심리 도서가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심리 관련 읽는 골프가 더 있다. 이러한 심리 관련 읽는 골프의 대표적인 서적들을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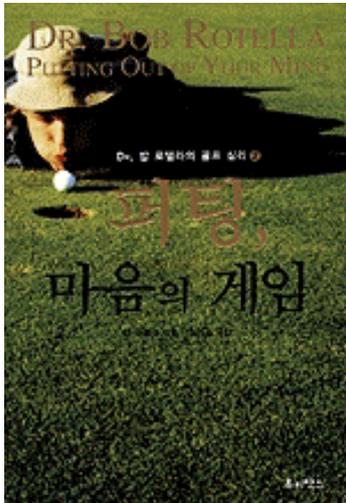
가장 도전적인 퍼팅은 1999년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대회 마지막 그린에서의 퍼팅이었다. 퍼팅 거리나 브레이크는 어렵지 않았다. 7피트 거리에 볼이 홀을 지날 염려도 없었다. 대회 첫날이라면 부담이 없었겠지만, 그 날은 마지막 날이었다. 또, 토너먼트 우승을 할 수 있는 이글 퍼팅 이었다. 그리고 59타를 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PGA투어에서 누구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60타 이하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록을 위한 마지막 퍼팅이라는 압박감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밥 로텔라에게서 배운,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데이비드 듀발).

데이비드 듀발의 이야기처럼 골프 경기를 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경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숙지, 연습한다면 압박감 속에서도 평상시와 같은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심리적 읽는 골프에 대해 소개한다.

퍼팅, 마음의 게임

저자 : 밥 로텔라 / 역자 : 원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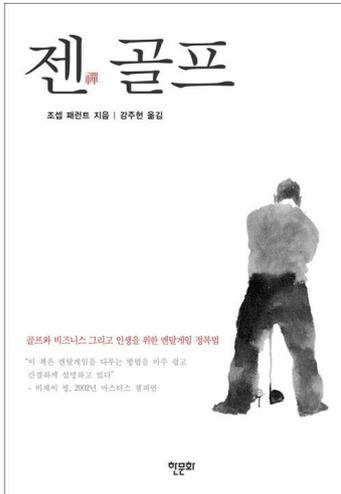
[그림 32] 퍼팅, 마음의 게임

밥 로텔라는 미국 최고의 스포츠 심리학자로서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스포츠심리학과 교수로 20년간 재직하고 있다. 골프심리에 관한 다양한 서적을 출간하였다. 현재 세계적인 골퍼들인 닉 프라이어, 탐 카이트, 데이비스 러브 3세, 팻 브래들리, 브래드 팩슨, 존 델리 등에게 골프의 정신적인 면을 실제와 관련시켜 조언하는 그의 조언이 들어 있는 이 책은 멋진 퍼팅의 비밀은 스트로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한다. <퍼팅, 마음의 게임>을 포함하여 <골프 완벽한 게임은 없다>, <골프, 자신감의 게임>까지 골프 심리에 관한 바이블 같은 서적을 연달아 출간하였다. <퍼팅, 마음의 게임>에서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 밥 로텔라는 본인이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루틴, 입스, 생각, 연습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올바른 루틴을 가짐으로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으며,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퍼팅하는 과정 속에 자신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통제 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

<퍼팅, 마음의 게임>을 통해 퍼팅에 관해 자신을 신뢰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경기하는 방법, 퍼팅에 대한 도전을 사랑하는 방법 등 퍼팅에 관한 새로운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퍼팅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이다.

젠 골프

저자 : 조셉 패런트 / 역자 : 강주현



저자 조셉 패런트는 PGA, 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유명 코치이다. 최고의 멘탈 게임 전문가이며 심리학박사이기도 하다.

<젠 골프>는 불교의 선사상을 토대로 작성되어 종교서적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골프가 멘탈 게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선사상은 골프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림 33] 젠 골프

정신은 기운찬 야생마와 같으니라, 야생마는 묶어 놓으면 더욱 발광하면서 굴레를 벗어나려 한다. 그렇다고 때려서 길들이려 한다면 야생마는 뒷발질을 해대며 더욱 사납게 변할 것이다. 네 정신을 성급히 다스리려 하지 마라. 그렇게 내버려두면 네 정신이 언젠가 스스로 차분해 질 것이다. 그때 살그머니 다가가서 길들이기 시작해라.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라. 훈련을 마치면 너는 한때 야생마였던 네 정신을 타고 네가 원하는 어디라도 쏜살 같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젠 골프, 본문 中).

불교의 다양한 우화를 통해 골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서적으로서 골프를 하면서 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화를 통한 내용 전달은 골프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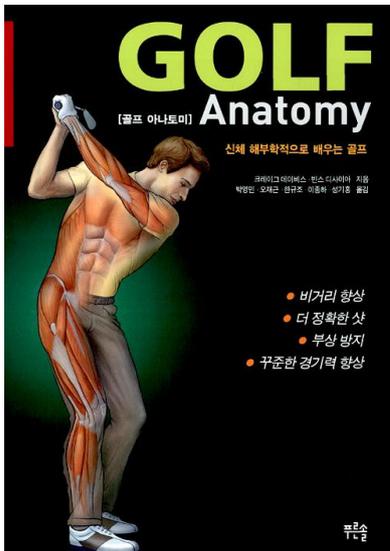
3) 의학

의학 분야라고 하니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지루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읽는 골프에서 의학 분야는 딱딱하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건강을 위해, 안전을 위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골프 아나토미

저자 : 크레이그 데이비스, 빈스 디사이아

역자 : 박영민, 오재근, 한규조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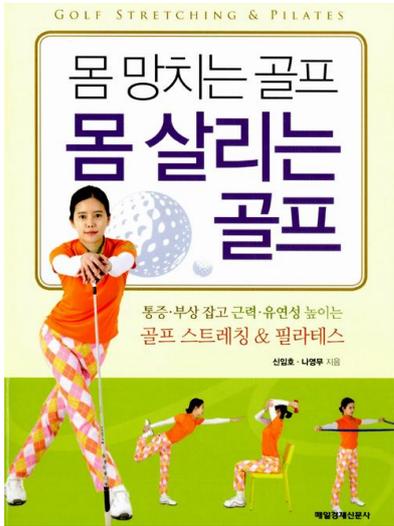


저자 크레이그 데이비스와 빈스 디사이아는 PGA 투어는 물론, LPGA, 아이안투어, 일본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피트니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골프에 적합한 몸을 만들고 유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의 저서 <골프 아나토미>는 골퍼들이 골프를 잘 하기 위한 신체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활동들을 나열해 놓았다. 신체해부학적으로 필요한 부위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운동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소 지루 할 수 있는 해부학적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체 해부학적으로 배우는 골프 『골프 아나토미』. 이 책은 근력과 파워, 운동범위를 늘려줌으로써 비거리 향상과 정확한 샷을 구사하게 하여 스코어를 낮추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 7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운동은 단계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활동 근육은 해부학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 단순한 운동을 뛰어넘어 티, 페어웨이, 그리고 그린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도우며, 이 책을 통해 가동성, 안정성, 균형, 신체자각, 근력과 파워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다.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

저자 : 신임호, 나영무



[그림 35]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축구협회, 골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주치의 를 맡았던 정형외과 전문의 나영무 박사와 기자출신 신임호의 공동 저서이다. ‘운동도 모르고 하면 다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골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부상을 방지하고, 골프에 필요한 근육을 이완시켜줌으로서 부상에서 방지하고 건강하게 골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적이다. 평소에, 그리고 라운드 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짐볼, 덤벨, 밴드 등 간단한 마사지와 테이핑, 골프를 치면서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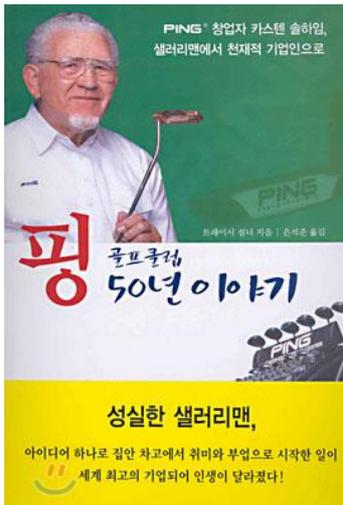
끼는 여러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우선 다치지 말아야 하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래도 다친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골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담고자 했다. 출퇴근길, 업무 시간 틈틈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 골프에 필요한 근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유연성, 준비운동, 스트레칭, 부상 발생의 주요 부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골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스트레칭, 맨손운동, 짐볼, 발란스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길러줌으로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준비운동과 관련해서는 척추, 골반, 하체 등 골프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고 있다. 부상에 관한 설명으로는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관한 부상 이유와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골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의학 정보를 담고 있다.

4) 클럽

클럽분야의 서적은 피팅 산업이 활발해 지면서 몇 권의 서적이 출간되었다. 대체적으로 클럽 피팅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서적으로 플레이어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용이 다소 딱딱하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 무거운 면이 있다. 클럽 관련 대표서적으로는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를 선택했다. 핑 골프는 골프산업과 클럽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골프클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다.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

저자 : 트레이시섬너 / 역자 : 은석준



[그림 36]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는 핑 골프클럽이 골프클럽 발전과 플레이어에 미친 역할을 생각한다면 꼭 읽어보아야 할 서적이다. 핑 골프클럽은 카스텐 솔하임이라는 샬러리맨이 우연히 접한 골프에 매료되어 골프클럽을 제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카스텐 자신의 이름을 제조사명으로 퍼트를 제작하여 시중에 선보였으며, 이를 사용한 프로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단번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에 힘입어 아이언까지 제작 하면서 골프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정밀주조라는 새로운 방식의 아이언을 생산해냄으로서 골프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카스텐은 늘 최상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클럽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공로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위대한 전문인 상을 수상하였다.

나. ‘문화이해’ 읽는 골프

1) 수필

두 번째로 많은 읽는 골프 장르는 수필이다. 수필은 선수, 아마추어 골퍼 등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골프를 통해 무엇인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수의 서적이 출간되어 있었다.

읽는 골프의 수필 관련 부분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서적들이 많았다. 세계정상의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쌓기까지의 여정과 우리가 경험 해 보지 못한 대회에서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정보들이 수필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골프 전문가의 이야기나 골프를 사랑하는 골퍼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골프와 다양한 경험을 알아감으로서 이들이 작성한 수필을 읽는 사람들에게 골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수필에서도 세부적으로 심리, 삶, 문화, 교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골프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인 것이다. 극히 골프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 들로서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골프에 대한 생각을 서술한 글 들이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한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글들로 하여금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개개인의 골프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하고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해 준다.

읽는 골프의 수필 부분에서의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초월의 길>,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골프 도를 만나다> 등이 있다. 이 서적들은 골프를 잘 치고자 하는 것보다는 골프를 통해 교훈을 얻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프를 단순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통해 삶의 질, 내면적인 성숙까지 생각한 서적이다.

골프, 道를 만나다

저자 : 김종업



[그림 37] 골프 도를 만나다

<골프 도를 만나다>는 ‘주간동아’에 연재되었던 글을 엮은 것이다. 저자는 수십 년간 기 수련을 통해 자연과 함께 생활해 오면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을 골프를 통해 표현한 서적이다. <골프 도를 만나다>에서는 골프를 단순히 하는 스포츠로 생각하지 않고 철학적 사고로 바라보았다. ‘골퍼는 신선, 내가 공에 생명을 부여했다.’, ‘기 골프, 멘탈 골프’, ‘집중하면 느낀다, 고감도의 세계’, ‘18홀의 비밀’, ‘운은 비켜라, 삶의 주인공은 나’, ‘무엇 때문에 18홀을 도는가’ 등 골프를 철학적으로 바라보며, 골프를 통해 참 나를 찾는 과정을 담고 있다. 골프를 탄생과 죽음으로 비유하면서 티에 볼을 올려놓는 것을 탄생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홀컵에 볼을 넣는 것을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골프를 가볍게 하는 스포츠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과감히 깨트리는 서적이다. 골프에 관해 많은 철학적 의미부여를 함으로서 골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적이다.

티샷에 공을 올려놓는 순간 생명이 창조된다. 탄생한 생명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바로 홀컵을 향해. 이는 마치 인간이 목숨을 다하여 땅속 작은 구멍을 향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는 이 구멍을 무덤이라 부르지만 이 마지막은 분명 환생, 즉 다음 티샷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생명이 탄생하여 죽음이 라는 홀컵을 향해 달려가지만, 다음 생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골프를 통해 생애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골프, 도를 만나다 본문 中).

2) 인물

인물 장르를 구분 지으면서 수필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결과적 입장을 인물로 분류 하여 그 인물이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인물로 분류하였다.

인물 부분의 대표서적으로는 <잭 니클라우스의 골프와 나의 인생>, <끝나지 않은 게임>, <코리아 탱크 최경주>, <박지은의 내 인생 최고의 경기는 지금부터가 있다> 이러한 인물 관련 서적은 본인들이 골프 선수로서 대회에 참가하고 느끼고 일룬 것들을 담은 내용 들이다.

코리아 탱크 최경주

저자 : 최경주



최경주 사진

실 패 가 나 를 키 웠 다

코리아 탱크 최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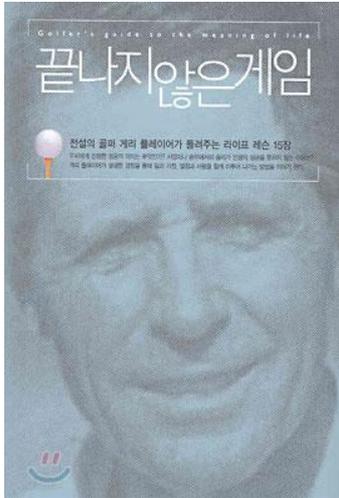
www.koreatank.com

[그림 38] 코리아 탱크
최경주

최경주는 대한민국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하여 우승까지 이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골퍼이다.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로무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의 경쟁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노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최경주는 완도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성실과 끈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퍼 선수가 되었다. 연습벌레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지독히 연습하기로 소문이 나있으며, '실패가 나를 키웠다'고 할 정도로 PGA 투어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많은 도전 앞에선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그가 골퍼를 어떻게 시작하였고, 해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끝나지 않은 게임

저자 : 게리 플레이어 / 역자 : 김현주



[그림 39] 끝나지 않은 게임

게리 플레이어는 메이저대회에서 열여덟 차례 우승하고, 1974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등 통산 164승을 기록한 위대한 선수이며 아놀드 파마, 잭 니클라우스 와 함께 60, 70년대를 풍미한 빅3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 최정상 선수로 활약한 그는 <끝나지 않은 게임>을 통해 잘 치는 방법이 아닌 골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10가지의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자신이 골프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성공, 배움, 감사, 승리, 존엄, 심신단련, 탐험, 스포츠맨십 등 골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50년 동안의 경험에 버무려 차려 놓은 풍성한 이야기는 게리 플레이어 특유의 진솔하고 솔직한 어투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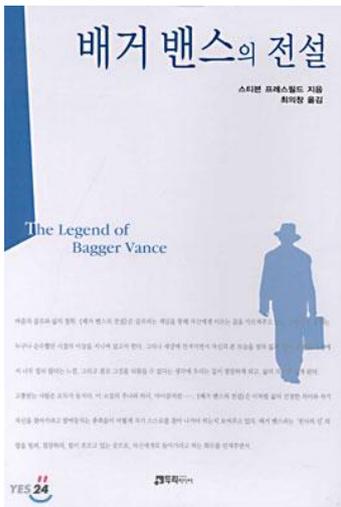
흔히 이런 종류의 책들이 저자의 방식과 자신의 스타일을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리 플레이어는 오히려 다른 사람, 특히 경쟁자에게서 끝없이, 그리고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를 강조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뿐이며, 배움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독학을 하라고 강조했다. 인생은 되돌려 줄 때 완성된다는 감사를 이야기하며, 도망가는 것보다는 맞서는 것이 쉽다고 두려움에 관해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승리를 위해서는 찾아온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의지를 불태워야 하며, 스포츠맨십을 통해 동료들과 즐거움을 나누라고 한다. 화목한 가정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항상 몸의 건강 상태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삶이 발전적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게리 플레이어는 말한다.

3) 소설

소설은 어렵고 지루한 주제도 흥미와 재미로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읽는 골프에서도 다소 딱딱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 라운드>, <사랑과 골프>, <골프예찬>, <천국에서의 골프>, <배거 밴스의 전설> 등 골프관련 소설들은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을 흥미와 재미로 내용에 빠져들게 한다.

배거 밴스의 전설

저자 : 스티븐 프레스필드 / 역자 : 최의창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열 살 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하여 상당한 수준의 골프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의 저서 <배거 밴스의 전설>에서는 힌두교의 마하바라타, 바가바드기타를 토대로 골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배거 밴스의 전설>은 골프를 통해 삶의 철학을 배워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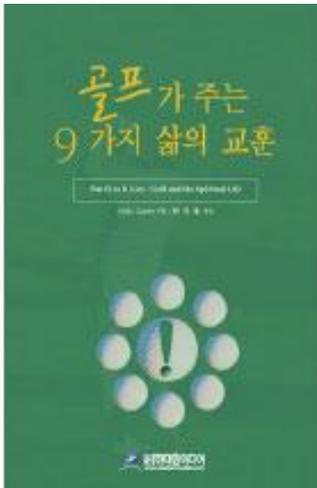
배거 밴스라는 캐디가 아마추어 골퍼인 주나에게 '참된 스윙'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의식 이전 단계, 의식 단계, 그리고 의식을 넘어서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의 길, 지식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골프를 통해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배거 밴스의 전설은 진정한 골퍼, 진실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 주고 있다. 골퍼의 내면에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골프를 맛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적이다.

4) 교양

교양 부분의 서적들은 그 분류 안에서든 레슨, 정보, 산문, 삶, 심리, 인물,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양서적들은 전문 작가에서부터 일반 골퍼들까지 골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골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서적들이다.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저자 : 마이크 린더 / 역자 : 최의창



[그림 41]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가톨릭 신부인 저자는 골프 라운드의 신비로운 현상을 영적인 삶과 결부시켜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골프라는 스포츠는 다른 종목들 보다 삶의 신비로움과 진리를 많이 깨닫고 얻을 수 있다는 삶의 교훈을 제시한 책이다.

1.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라 2. 규정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3. 도움받기를 주저하지 말라 4. 현재에 집중하며 살라 5. 강함과 부드러움을 조화시켜라 6. 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 7. 두려움을 감싸 안아라 8.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라 9. 이기는 것만이 최고가 아님을 알라. 저자가 골프를 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9가지 교훈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덕목은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들고 있으며 골프장이나 일상생활에서든 이성과 감정이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삶의 다양한 무대들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마음의 여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으로 골프를 즐길 줄 아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전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

저자 : 알렉스 트레스니오프스키 / 역자 : 김원호



[그림 42]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

는 것을 생각하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라, 때를 기다릴 줄 알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 마음을 나누는 풍부한 인간미와 같은 철학을 담고 있다. 타이거 우즈는 이를 통해 놀라운 집중력과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책에서는 전한다. 불교의 나라인 태국출신 어머니와 베트남 참전군인 경력의 미국인 흑인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출신으로 미국에서 성장하였지만 불교의 교리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타이거 우즈만의 18가지 성공철학은 그가 매 경기마다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록을 일구어내는 그만의 힘이자, 골프 세계에 있어 최고의 경지에 우뚝 서는 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필드에서 그가 끌어낸 성과들은 단순히 타이거 우즈 개인이 얻은 하나의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에 은유적으로 끌어냄으로써 책을 읽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기본자세나 사고방식 등 삶의 교훈으로서 설득력 있게 작용할 것이다.

골프의 신화로 군림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의 성공 배경 중에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삶의 철학을 18가지(타이거의 道)로 정리한 책이다. 그의 18가지 성공철학은 현재의 순간을 살라, 겸손이 몸에 배게 하라,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마음이 삶을 결정한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라, 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라,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 능력을 믿고 직관을 따르라, 항상 최선을 다하라, 진실로부터 나오는 힘, 내 사전에 한계란 없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결국 기댈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5) 잡지

읽는 골프에서 잡지 부분은 빼 놓을 수 없는 장르이다. 잡지라는 특성상 다양한 정보, 레슨, 뉴스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층이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월간으로 출판되는 서적만 조사하였으며, 국내에는 해외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국내용으로 자체 제작하는 잡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잡지로는 <골프다이제스트>, <골프매거진>, <골프포워민>, <더 골프> 등이 있다.

골프다이제스트

저자 : 골프다이제스트 편집부



세계적인 골프잡지 <골프다이제스트>는 월간 백만 부 이상 판매를 올리는 대표적 골프 전문 잡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출판되는 골프잡지로서 본사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판은 외국기사와 국내기사 50:50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세계 유명 프로골퍼의 레슨, 국내는 물론 해외의 유명 골프장 소개, 미국, 유럽, 국내에서의 골프경기 소식, 유명 선수들의 인터뷰

[그림 43] 골프다이제스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 칼럼리스트들의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읽을 수 있다.

골프다이제스트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골프잡지가 패션화보와 같은 생동감 있다는 것에 있다. 골프에 관한 정보를 국제적 이슈 및 발행국가별 이슈를 함께 구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전달해 오고 있다. 많은 발행부수와 독자층을 확보한 대표골프잡지로서 다양한 사진과 월별 특정 이슈로 표지를 장식하여 많은 골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6) 골프장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환경의 골프장이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3만여 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으며, 국내에만 500여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 중에서 미국과 유럽의 골프장이 골프의 본고장인 만큼 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끈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으로 골프장 관련 답사기를 쓰는 사람의 수도 많다.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저자 : 이다겸, 최영목



[그림 44]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이 책은 골프를 사랑하는 부부의 유럽 골프 코스 일주를 기록한 서적이다. 골프장 정보는 물론, 유럽의 문화와 유럽인의 삶속에서 자리한 골프문화를 들여다 볼 기회를 주고 있다. 180일간 유럽의 82개의 골프장을 다니면서 해당 지역의 문학, 역사, 지리,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 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하여, 유럽의 최서단인 포르투갈 호카곶까지 15개 나라를 넘나들며 골프장을 찾은 내용이다. 가장 오래된 골프 코스인 스코틀랜드의 ‘머셀버러 링크스’, 정해진 비용이 없이 자율적으로 그린피를 내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골프 클럽’ 나폴레옹이 유배가기 전 머물렀던 뽉텐블로 성 숲 속에 자리한 ‘골프 드 뽉텐블로’를 비롯한 명문 코스는 물론 개성 넘치는 지역 골프장까지 스펙트럼도 넓다. 이 책은 이렇게 발견한 각 지역의 골프 문화를 통해 유럽의 속살을 들추며, 그 기저를 이루는 ‘인문’을 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코스는 물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골프장도 소개되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읽어 볼만한 서적이다.

다. ‘확장변용’ 읽는 골프

1) 경영

골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읽는 골프 분야에도 골프와 관련된 경영서적들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회원권과 관련된 서적, 골프장 경영에 대한 서적 등 골프산업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그 중에 특별한 서적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

저자 : 홍정균



[그림 45]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는 저자 홍정균이 각종 골프대회를 기획 운영 하면서 얻은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골프경영 서적이며,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를 비롯한 스포츠 마케터 지망자를 위한 취업서이다.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며, 실제 운영매뉴얼과 에피소드를 통해 골프 대회 현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스포츠 마케터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다. 협찬사 유치를 위한 제안서부터, 골프대회 기획서 등 골프대회를 기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에 관련된 각종 내용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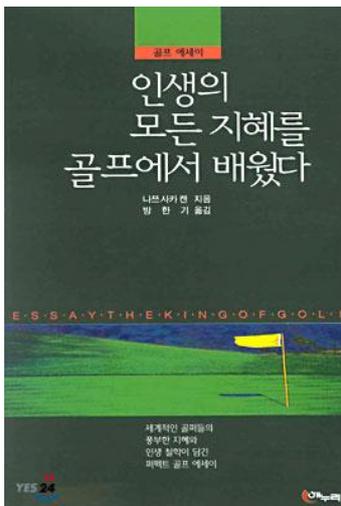
저자가 대회를 운영하면서 겪은 다양한 현장 에피소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자골프 대회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대회를 운영하고자 각종 이벤트에서부터 갤러리를 위한 다양한 참여 행사까지 각가지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많은 도움과 이해를 줄 수 있는 서적이다.

2) 자기계발

골프를 통해 삶이 변화 될 수 있다. 고르는 인생과 비유되는 스포츠 종목임으로 골프에서는 유독 자기계발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디팩 초프라의 <달인이 된 골퍼>, 마크 피셔의 <골퍼와 백만장자>가 있다. 이러한 자기계발 읽는 골프는 골프를 통해 독자가 인간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저자 : 나쓰사카 켄 / 역자 : 방한기



[그림 46]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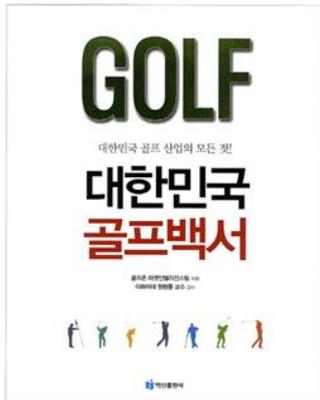
나쓰사카 켄은 전문 작가로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골프에 관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쓰고 있다.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는 책의 제목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듯이 골프를 통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다.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의 풍부한 지혜와 인생철학이 담긴 골프 에세이이다. 골프는 자신의 인격을 모두 드러내는 게임이며,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저자는 골프의 특성을 삶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골프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 경위와 골프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 역사에 관한 이야기, 위대한 골퍼들의 철학, 골프클럽과 용어의 발전 경위 등 골프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위대한 골퍼, 골프의 정신, 숙녀의 골프, 왕자의 골프의 4개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장마다 골프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정보

읽는 골프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준다. ‘책속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읽는 골프, 서적에도 골프관련 다양한 정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관련 장르에 문화, 법률, 상식, 역사, 삶 등의 내용이 담긴 읽는 골프를 통합 시켰다.

대한민국골프백서

저자 : 골프존 마켓 인텔리전스 팀



[그림 47] 대한민국골프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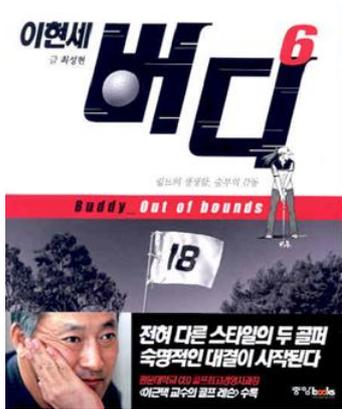
국내 골프 단일 종목을 대상 대표기업인 골프존에서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모든 것 <대한민국 골프백서>. 골프의 역사 및 골프장, 회원권,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골프용품, 골프웨어 등 골프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세부산업에 대한 현황, 골프인구 및 이용에 관한 백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골프자료집이다. 골프 관련 빅 데이터를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다루어 분석하여 국내골프산업 전반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도서 내의 골프로드윈정대의 다양한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시장 조사기관인 TNS와 함께 작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그래프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골프산업에 관하여 단순히 흥미를 가진 독자층 및 골프관련 종사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존의 기업 보고서, 학술지 등의 형식에서 벗어나 골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관련 지식 및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음에 기여하고 골프기업으로서 골프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을 하고자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정보 장르의 대표서적으로 선정하였다.

4) 만화

읽는 골프 중에 당연 눈에 가는 것은 만화 일지도 모른다. 그림과 같이 보는 만화는 골프를 알기 쉽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골프만화는 국내에서도 몇 편 출판되었지만 일본에서 주로 출판되어 번역되고 있다.

버디

저자 : 최성현 / 그림 : 이현세



[그림 48] 버디

대한민국 대표 골프스타 박세리와 미국 교포인 미셸 위를 모델로 현장의 생생함을 만화 형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내 최초 본격 골프 만화로 스포츠 서울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골프 팬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온 <버디> 는 골프를 통한 꿈과 사랑, 땀과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리얼 스포츠 만화이다. 각기 다른 성장배경을 바탕으로 천재형과 노력형인 두 여자골프 선수

간의 생을 건 치열한 골프승부 및 한 남자의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두 선수간의 골프 승부 외적인 얘기가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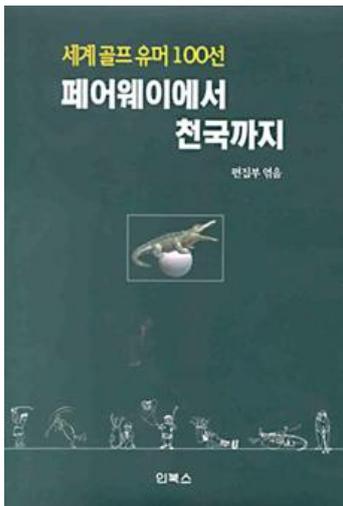
스토리를 전개하며 주인공들의 경기장면에서 상황에 따른 기술, 전략, 룰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버디>가 골프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여러 책들과의 다른 점은 매권 마다 스토리 도입 부에 유명 전직골프 선수들의 명언과 그들의 생애 및 골프 역사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 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만화라는 형식을 통해 단순히 흥미 위주의 스토리 전개가 아니라 읽는 이의 골프소양 함양 전반을 도모 할 수 있는 배울 점을 책 전반에서 제시하고 있어 만화 장르의 대표서적으로 선정하였다.

5) 유머

골프 라운드는 평균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되는 스포츠이다. 이러한 시간동안 볼도 쳐야 하지만 동반자와 즐거운 시간, 담소도 나눠야 한다. 대체적으로 4인 1조가 되어 플레이하기 때문에 4명이 모두가 즐거우려면 누군가는 유머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골프관련 유머를 주제로 한 읽는 골프가 있다.

페어웨이에서 천국까지

저자: 인북스 편집부



[그림 49] 페어웨이에서
천국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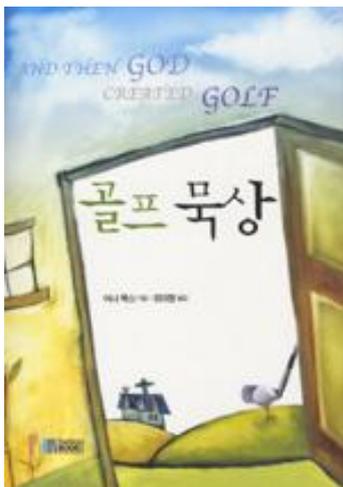
골프와 관련된 세계 유머 100가지를 가려 뽑은 책이다.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슬라이스를 시작으로 전설적인 골퍼선수 잭 니클라우스를 추기경으로 묘사하고, 골프광과 장례식, 낙천적인 마누라, 사파리에서 골퍼를, 여성 골퍼도 동등한 권리를, 골퍼가 섹스보다 좋은 이유 등 인터넷 세계 골퍼유머를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다양한 특징의 등장인물과 일상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골퍼 및 각종 유머를 이야기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골퍼유머를 통하여 골퍼 경기 결과에 대한 개개인의 이유 있는 핑계거리로 스스로를 위로하고자하는 나약한 골퍼들을 비하하는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골퍼종목의 속성을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나약한 골퍼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독자의 내면을 돌이켜 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있다. 흥미로운 유머의 형식으로 골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유머장르의 대표서적으로 선정하였다.

6) 종교

읽는 골프 중에는 종교에 주제를 한 서적들이 여럿 있다.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골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종교적 관점에서 서술한 서적들이다. 종교관련 대표적 읽는 골프로는 <골프묵상>, <명상 골프> 등이 있으며, 종교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골프를 바라본 서적들도 다수 있었다.

골프 묵상

저자 : 어너 북스 / 역자 : 최의창



[그림 50] 골프 묵상

골프를 하며 기독교적 영적 활동 및 성장을 가능하도록 기획된 서적이다. 티박스, 스윙, 해저드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과 관련된 상황을 지적하며 골프 활동과 신앙을 연관 지어 얘기를 구성하고 있다.

<골프묵상>은 골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성경 말씀과 기도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종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서적이란 딱딱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골프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상황들을 토대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기도를 함으로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골프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묵상의 기회로 깨닫도록, 골프 속의 믿음과 신앙의 통로를 찾아내는 묵상서다.

또한 중간 중간 나오는 유명 선수들의 명언을 통해 골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명선수들의 명언은 읽는 골프의 매력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동요와 사색을 가져오기 충분하다.

IV.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

골프 소양 함양을 위해 인문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본인이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독서를 통해 간접 체험함으로써 골프의 내면에 깊이 빠져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간접경험이 경기력 향상과 지적 향상,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일선의 지도자들이 기술습득을 전하기 위한 단순한 주입식 전달방법이 아닌 다양하고 체계화 된 커리큘럼을 통하여 상황에 적합한 역사, 문화, 정보 등의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읽는 골프의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읽는 골프의 전도사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골프소양은 함양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골프의 기술적 부분인 ‘골프능’, 골프의 지식과 관련된 ‘골프지’, 골프의 마음자세와 관련된 ‘골프심’으로 나누어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골프관련 문학과, 예술, 종교, 철학, 역사를 알아감으로서 골프관련 인문적 지혜를 습득하여 골프를 좀 더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골프 ‘능(能)’소양 향상

가. 골프 ‘능(能)’소양 향상을 위한 방법

골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알고 그 기술을 연습해서 몸에 체득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연습장의 프로에게 배울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동영상 레슨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는 곧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부족한 점은 바로 생각을 통한 사색 할 기회의 결여이다. 무엇인가를 배웠으면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데. 프로에게 레슨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볼 때에는 전달자의 말을 받아들이기도 바쁘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읽는 골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읽는 골프, 독서는 사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독서의 효과 중에 사색을 통해 내면 깊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색은 전문가의 조언을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술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부분인 ‘골프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읽는 골프의 방법으로는

첫째, 읽는 골프의 기술 분야를 다양하게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전문 레슨프로가 출간한 읽는 골프라 하더라도 그들의 골프 환경, 추구하는 지도의 스타일이 다양함으로 한권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여러 권의 서적을 읽으면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 스윙, 플레이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누구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것을 인지하고 여러 권의 기술 서적을 봄으로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공통점을 찾자. 여러 권의 기술서적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접하지만, 그중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골프라는 것이 결국에는 누가 적은 타수로 홀컵에 볼을 넣는 게임이다. 이러한 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전문지도자, 아마추어 고수들이 알려주는 기술적인 내용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다. 또한 골프스윙은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분야별 전문 서적을 읽자. 골프기술과 관련된 분야로는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숏게임, 퍼트, 트러블샷 등이 있다. 시중에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읽는 골프가 출간되어 있다. 이러한 전문 서적을 읽음으로서 기술적 발전, ‘골프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골프기술 분야를 책을 보면서 습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읽는 골프를 통해서라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골프 ‘능(能)’소양 향상을 위한 읽는 골프

‘골프능’ 소양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 분야의 읽는 골프를 접해야 한다. 기술 분야에서도 스윙의 자세를 나타낸 동작, 스윙의 원리를 분석한 과학적인 부분, 라운드를 돌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본인의 능력에 맞는 수준별, 정확한 타수를 계산하기 위한 물 등 ‘골프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읽는 골프가 있다. 이러한 읽는 골프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 시켜야 하겠다. ‘골프능’ 소양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읽는 골프를 추천하면 좋을 것이다.

[표 5] 골프능, 학습자 수준에 따른 분류

	초급	중급	상급
읽는 골프	기술(입문용)	기술(과학적/경험적) 심리	기술(철학)

학습자의 수준별 읽는 골프는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입문자의 경우 아직 골프에 관한 내용에 익숙지 않음으로 초급의 내용을 담은 읽는 골프와 스윙 동작에 관한 읽는 골프를 읽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급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에는 골프의 전반적인 설명이 담겨져 있다. 골프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골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골프의 역사, 장비에 대한 설명, 골프장에서의 행동 방법, 플레이 하는 방법, 스윙방법 등 골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라면 꼭 몇 권의 입문을 위한 읽는 골프를 읽어 봐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입문적 읽는 골프로는 김홍구의 “골프란 무엇인가”, 요시무라 후미에의 “골프 for 레이디”, 김현의 “골프도 독학이 된다”이다. 이 책들에는 골프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골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시작으로 어떻게 골프를 해야 하며, 스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초급편이라 다소 내용에 깊이는 떨어질 수 있으나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기를 추천한다.

다음으로 중급자는 18홀 라운드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100타에서 80타 사이의 실력을 가진 골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골프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스윙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골프장을 나갈 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신형 골프클럽이 출시되면 가장먼저 구매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급자에게는 본인의 실력을 좀 더 심화 할 수 있는 읽는 골프를 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읽는 골프의 기술분야와 심리분야는 이들에게 골프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급자들의 골프실력을 한층 높여 줄 수 있다 중급자에게 '골프능' 향상을 위한 읽는 골프로는 타이거우즈의 '나는 어떻게 골프를 치는가'와 데이브 펠츠의 '두려움 없는 골프', 밥 로텔라의 '골프 자신감의 게임', '골프 완벽한 게임은 없다', 퍼팅 마음의 게임'을 추천한다. 유명 선수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교습가의 과학적인 분석, 심리분석가의 정확한 판단이 중급자의 '골프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급자는 18홀 라운드에서 평균적으로 80타 이하를 치는 사람들로서 이들 중에는 선수들도 포함된다. 상급자들에게 필요한 '골프능'은 골프에 깊이를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의 읽는 골프를 추천하고 싶다. 읽는 골프의 기술부분에는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골프기술을 기술한 서적들도 있다. 골프의 외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며 작성 된 서적이다. 대표적으로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골프를 한다면 당신은 내 친구'와 이종철의 '골프 생각이 스윙을 바꾼다', 그리고 김현의 '내안의 골프본능'이 그러한 읽는 골프이다. 이 서적들에는 골프의 스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본인의 '골프능'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줄 것이다.

[표 6] 골프능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구분	초급	중급	상급
읽는 골프	골프란 무엇인가 골프 for 레이디 골프도 독학이 된다	나는 어떻게 골프를 치는가 두려움 없는 골프 골프 자신감의 게임 골프 완벽한 게임은 없다 퍼팅 마음의 게임	리틀 레드북 골프를 한다면 당신은 내 친구 골프 생각이 스윙을 바꾼다 내안의 골프본능

2. 골프 ‘지(智)’소양 증진

가. 골프 ‘지(智)’소양 증진을 위한 방법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책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게 해주는 독서는 지식 습득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이러한 독서는 골프 지식 즉, ‘골프지’를 증진시키기에도 적합하다. 골프 관련 역사, 문화, 교양, 룰 등 골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읽는 골프를 통해 증진 시킬 수 있다. ‘골프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문화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스포츠에는 그것들만의 문화가 존재한다. 골프를 다양한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만 ‘골프지’를 제대로 습득 할 수 있을 것이다. 읽는 골프에는 다양한 문화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관련 서적들을 읽음으로서 다양한 지식이 습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골프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한다면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골프에 관한 배경 지식들인 역사, 수필, 정보 분야의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정보 분야에는 음식, 에피소드, 상식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흥미 있는 분야의 서적을 먼저 읽자. 독서라는 것이 습관이 생기기까지 다소 지루함과 짜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루함을 흥미 있는 분야의 서적을 읽음으로서 해소될 수 있다. 읽는 골프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서적을 읽는 것이 좋다. 기존에 독서와 거리가 있었다면 만화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골프만화는 대체적으로 골프를 주제로 하면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입문서로 읽기 좋다. 골프장을 좋아한다면 골프장 관련 수필을 먼저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초보자들은 골프의 흥미와 입문위주의 내용 및 형태를 위주로 한 도서를 활용함으로써 ‘골프지’를 증진 시킬 수 있다.

나. 골프 ‘지(智)’소양 증진을 위한 읽는 골프

‘골프지’ 소양 증진을 위해서는 골프의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골프문화에 관한 부분을 증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의 역사를 앎으로서 골프에 관한 생각이 깊어 질 수 있으며, 골프 소설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키울 수 있으며, 골프 수필을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프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읽는 골프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표 7] 골프지, 학습자의 성향에 따른 분류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읽는 골프	만화, 소설	자기계발	정보, 심리	소설 수필(자서전)

‘골프지’ 소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골퍼들의 성격특성에 맞춰 읽는 골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격특성은 크게 4가지로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행동형은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머리 회전은 빠르나 인내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성향의 골퍼들은 가만히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을 힘들어 하기 때문에 흥미를 불러 올 수 있는 읽는 골프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다. 읽는 골프 중에는 골프를 만화로 표현 한 서적들도 여럿 있다. 이현세의 ‘버디’, ‘골프천재 탄도’ 등 다양한 골프관련 만화책이 있다. 이러한 읽는 골프로 흥미를 가지게 하고 점점 읽는 습관을 들이고, 읽는 내용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분야로 옮겨 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규범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규칙과 원칙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성격의 골퍼들에게는 자기계발 분야의 읽는 골프를 추천하는 것이 좋다. 골프를 통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서적들 중에는 리더십을 주제로 한 서적들이 더러 있다. 도널드 맥휴의 ‘최고의 인생을 위한 게임’, 대아비드 코트렐의 ‘골프에서 배우는 리더십’ 등 리더십 관련 서적을 통해 본인의 성격과 맞는 서적을 읽게 함으로서 본인의 장점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훌륭한 골퍼들의 자서전도 내면의 성장을 키우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탐구형은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며, 생각이 깊고 좋아하는 일에 깊이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골퍼들에게는 골프정보 분야와 골프심리 분야에 관한 읽는 골프를 추천하고 싶다. 골프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역사적 내용은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서적으로 골프의 깊은 내막을 알아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골프가 왜 어렵지만 재미난 운동인지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토니 디어의 ‘골퍼가 알아야 할 골프의 모든 것’과 임명창의 ‘알고 치면 더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골프존에서 나온 ‘대한민국 골프백서’, 지미 로버츠의 ‘위대한 선수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는가’, 이학오의 ‘골프에서 길을 묻다’가 탐구형 성향을 가진 골퍼들에게 알맞은 읽는 골프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은 이상형이다. 이상형은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며, 감상에 잘 빠지는 성향으로 골프 소설, 자서전 부분을 읽히는 것이 골프를 좀 더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골프 소설과 자서전을 통해 골프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사고들을 접한다면 골프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골프 관련 시나 수필을 통해서도 골프 내면에 숨겨진 감성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형에게 맞는 읽는 골프로는 디팩 초프라의 '골프예찬, 주선태의 '노멀리건', 김홍구의 '마지막 라운드', 김종업의 '골프 도를 만나다', 김현의 스윙과 삶을 다스리는 마음골프'가 있다.

[표 8] 골프지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구분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읽는 골프	버디 골프천재 탄도	최고의 인생을 위한 게임 골프에서 배우는 리더십	골퍼가 알아야 할 골프의 모든 것 알고치면 더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대한민국 골프백서 위대한 선수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는가 골프에서 길을 묻다	골프예찬 노멀리건 마지막 라운드 골프 도를 만나다 스윙과 삶을 다스리는 마음골프

3. 골프 ‘심(心)’소양 함양

가. 골프 ‘심(心)’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

골프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우리는 능력만큼 잘하기도 하고, 능력보다 더 잘하기도 하고, 능력만큼 못하기도 하고, 능력보다 더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잘 풀려 성공에 대처해야 하고, 때로는 너무 안 풀려 실패에 대처해야 하지. 골프에서는 이 모든 일이 네 시간 반 동안에 그 작은 공에 의해 이루어지지. 공을 처음 움직이는 것도 자네 이고, 자네 말고는 그 공을 대신 쳐줄 사람이 없네. 그리고 인생에서는 매일 매 순간이 그렇지(멀리건 이야기, 본문 中)

위의 이야기는 켄블랜차드와 윌리 암스트롱이 지은 멀리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골프는 삶의 지혜, 마음의 평안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듯 읽는 골프를 통해 삶의 지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 볼 것을 권한다.

첫째, 훌륭한 선수의 수필을 많이 읽자. 훌륭한 선수들의 수필을 보면 골프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보다는 자기수양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골프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본인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골프를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하는 삶의 지혜, 마음의 평안을 위대한 선수들이 남긴 수필을 통해 얻어 보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고전을 찾아 읽자. 골프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골프관련 서적들에도 고전이 있다. 국내에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서적들도 있지만, 현재 국내에도 다양한 골프 고전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러한 고전에는 골프를 통해 삶을 바라본 서적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고전들을 읽음으로서 삶의 자세, 자기계발, 인격 수양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색을 하자. 다양한 읽는 골프를 접한 후 꼭 사색을 통해 읽은 내용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서의 효과는 사색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색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평온하게 해 줄 수 있게 된다.

나. 골프 ‘심(心)’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골프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며 수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골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골프가 인생과 비교되듯이 골프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골프심’을 통해 골프에 대한 열정, 인내, 사랑과 같은 골퍼의 내면적 측면을 강화하여 골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골프로 마음의 평안과 수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골프심’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읽는 골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경험을 통해서도 ‘골프심’을 함양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 받음으로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 골프심, 내적 측면의 의한 분류

	열정	인내	사랑
읽는 골프	기행문 수필(철학적 자서전)	수필(선수 자서전)	교양, 소설

‘골프심’ 함양을 위한 방법을 열정, 인내, 사랑으로 구분하여 읽는 골프를 접하면 좋을 것이다.

가장 먼저 골프에 관한 열정을 위해서는 기행문, 수필, 철학적 자서전의 읽는 골프가 도움이 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면서 내안의 골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읽는 골프로는 최금호, 설병상, 장기풍, 양기종의 ‘60일간의 미국 골프횡단’과 오태식의 ‘그래 난 골프에 미쳤다’, 게리 플레이어의 ‘끝나지 않은 게임’, 잭니클라우스의 ‘골프와 나의 인생’이다.

다음으로 인내이다. 인내는 골프소양 함양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골프 라운드를 하면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기다려야 하며, 본인의 플레이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내는 골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인내를 통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다림, 인내는 우리 삶에 참다운 행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심적 요소이다. 읽는 골프를 통해서 인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홍사중의 ‘골프는 인생이다’, 잭 캔필드의 하느님 내게 골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리 플레이어의 ‘인생을 결정하는 퍼팅의 순간들’, 하워드 선스의 ‘위대한 골퍼들’을 읽음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읽는 골프는 수필, 교양 부분의 읽는 골프로서, 골프가 왜 인내가 필요하며, 어떻게 인내를 하여 성공에 이르렀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다. 골프에서건 삶에서건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골프에 대해 더 잘 알고 싶고,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골프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게 되고 넓은 안목을 가지게 해준다. 골프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읽는 골프들이 있다. 읽는 골프의 교양이나 소설, 수필 부분에는 전문작가 혹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골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글들이 많다. 이러한 읽는 골프를 통해 골프에 대한 사랑의 느낄 수 있다. 사랑 관련 대표적 읽는 골프로는 제임스 도드슨의 ‘마지막 라운드’와 김홍구의 ‘사랑과 골프’, 이종현의 ‘시가 있는 골프’, 박한호의 ‘골프가 내게 준 사랑과 친구’이다. 이러한 읽는 골프를 통해 골프와 사랑에 관한 생각을 접함으로서 ‘골프심’ 부분의 사랑을 함양 할 수 있다.

[표 10] 골프심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구분	열정	인내	사랑
읽는 골프	60일간의 미국 골프횡단 그래 난 골프에 미쳤다 끝나지 않은 게임 골프와 나의 인생	골프는 인생이다 하느님 내게 골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퍼팅의 순간들 위대한 골퍼들	마지막 라운드 사랑과 골프 시가 있는 골프 골프가 내게 준 사랑과 친구

V. 결론 및 제언

골프소양을 함양 시킨다는 것은 골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과 같다. 골프를 단순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골프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골프소양을 함양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을 가짐으로서 골프를 사랑하고 이해하고는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골프소양 함양을 통해 골프의 외형적인 기술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내면에 숨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골퍼들은 신체의 고른 내, 외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본 연구 문제인 골프소양의 개념과 필요성은 무엇이며, 읽는 골프의 개념과 리스트, 장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결론

골프는 심판이 없는 게임이며, 기술의 수행과 함께 룰과 매너, 에티켓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이다. 상업적인 부분의 발달로 경쟁이 심해지고 언론에서 결과 중심, 능력 중심에 관한 것들만 중점 보도되면서 골프가 기술만이 전부라는 인식에 사로 잡혀 있다. 이러한 것은 골프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골프소양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받아드려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읽는 골프에 대해 알아보고 장르를 구분하여 스포츠 교육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골프소양 함양을 위해, 골프소양의 개념과 필요성

을 알아보고,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시중에 출판되어있는 골프서적 중 연구에 포함되는 250권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서적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소양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골프를 올바르게 받아드리고 느끼기 위해서는 골프를 다양한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 기술, 이론, 지식, 골퍼의 마음자세 등 골프를 온전히 받아드리기 위한 것을 골프소양이라고 한다. 골프소양은 기술적인 측면인 ‘골프능’, 지식적인 측면인 ‘골프지’, 마음가짐에 관한 ‘골프심’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둘째, 읽는 골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대형서점과 온라인을 통해 출판되어 있는 골프관련 서적은 40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이 중에는 절판된 서적들도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서적은 250권이다. 250권의 내용에 따라 총 16가지의 장르로 구분 지었다. 장르로는 경영, 골프장, 교양, 기술, 소설, 심리, 수필, 인물, 자기계발, 잡지, 정보, 만화, 유머, 의학, 종교, 클럽이다. 가장 많이 출판된 장르는 기술 분야였으며, 가장 적게 출판된 부분은 종교관련 서적이었다. 이들 서적들의 특징으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서술한 것들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다.

셋째, 읽는 골프의 스포츠 교육적 활용방법으로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골프능’에 대하여 학습자의 수준별인 입문, 중급, 상급으로 구분하여 읽는 골프를 활용 할 수 있다. 입문 수준의 골퍼들에게는 기술 장르의 입문적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골프소양의 ‘골프능’을 함양 시킬 수 있으며, 중급 수준의 골퍼들에게는 기술 장르 중에 과학적, 경험적 바탕으로 작성된 읽는 골프와 심리 장르의 읽는 골프를 활용 하여 ‘골프능’을 함양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급 수준의 골퍼들에게는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술 장르의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골프능’을 함양 시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골프의 지적 부분인 ‘골프지’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성향에 따른 분류를 통해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골프소

양을 함양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4가지로 학습자의 성향을 분류하여, 행동형의 경우 흥미위주의 읽는 골프인 만화 장르를, 규범형은 자기계발 장르를, 탐구형은, 정보와 심리 장르를 이상형은 소설과 수필 장르를 통해 ‘골프지’의 함양이 가능하다. 마지막 ‘골프심’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는 골퍼의 내면적 측면을 기준으로 열정, 인내, 사랑으로 분류하여 열정을 키우기 위해 골프장에 관한 기행문과 수필,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서전을 읽혀야 한다. 인내를 위해서는 골프선수의 경험을 통해 작성된 자서전이 도움이 된다. 사랑을 위해서는 교양 장르와 소설 장르를 활용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인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과 읽는 골프를 통한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골프교육을 위한 제언

골프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다소 주관적으로 여겨지는 실천적 지식이 낮게 평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반면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역학, 공학 등의 기술적 측면의 객관적인 지식만으로 골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성도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관련지식을 지도하는 지도자와 배우는 교습자 양측 모두에게 실천적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고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읽는 골프라는 실천적 지식을 통한 올바른 골프 소양 함양을 위한 골프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현재의 골프교육은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를 배우는 이들이 골프의 한 측면만을 배우고 깊이 있게 골프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골프교육 프로그램을 골프소양 함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기획하고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인 읽는 골프를 활용한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골프를 배우는 이들이 골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읽는 골프의 활용을 위한 코칭교육이 필요하다. 일선 현장에서 골프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기술적인 측면만을 골퍼들에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골프소양 함양이라는 의미와 중요성을 먼저 알리고 이에 대한 방안인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골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읽는 골프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골프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이러한 읽는 골프의 다양한 장르가 골프 실력 발전 및 골프를 통해 내면의 깊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읽는 골프를 통한 골프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교육함으로써 골프의 여러 부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프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지도자 및 교습자들이 읽는 골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골프의 여러 측면을 봄으로서 다양한 골프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여 온전한 골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골프교육의 상황별 꼭 필요한 읽는 골프의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의 성과 및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부분에 치우치지 않은 온전한 골프교육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지도자들 및 교습자들의 대화에서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골프교육의 성과를 위하여 지도자들과 교습자들과의 소모임 같은 교육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상호간의 관련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모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임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일선지도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읽는 골프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골프경력 및 능력, 성별에 따른 읽는 골프를 통한 교육적 활용방안이 단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별 골프의 경력, 능력에 따른 읽는 골프의 선택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읽는 골프의 단계적 선정 및 집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육체적 능력이 서로 상이한 여성 및 남성을 차이를 구분지어 교육적 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읽는 골프의 선정 및 집필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골프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읽는 골프를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치료의 처방적인 측면에서의 도입을 제안한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야에서 책은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사람들은 문제에 관련된 책을 탐독함으로써 각자의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해법 및 모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적 처방을 독서요법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독서치료를 위하여 대개 문학과 시가 처방되어 왔다. 복잡해져 가는 사회구조 내에서 개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문제 또한 예전과 다른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 되고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이 같은 많은 문제들을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문화를 기술하여 온 대표적인 도구인 책에 서 해결책을 찾고자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의 공급적인 측면에

서 스포츠관련 서적 특히 골프에 관련된 서적이 많이 출판 되고 있음은 사람들의 관심에 의한 수요가 원인일 것이다. 관심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사물, 사실에 대한 의문 등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기본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화현상의 관심을 토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독서치료의 처방으로서의 자산인 읽는 골프의 다양한 연구들은 독서치료에 유용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나리. (2012). **하나로 수업 모형 실천을 통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인식 변화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2008).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 강신복(편)(2009). **현대 스포츠교육학의 이해**. 서울: 레인보우박스.
- 강덕모, 강유원(2010). **新-운동문화 바라보기 :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한국 스포츠 인류학회** [2010], p.67-86
- 강덕모. (2012). 인문· 사회과학편: 변화하는 운동문화에 존재하는 학생선수의 경험과정.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1(3), 63-77.
- 강주현(2001). **골프에서 배우는 리더십**. 서울: 작가정신. David Cottnell. (1998). *Birdies, Pars, and Bogies: Leadership Lessons from the Links*. Cornerstone Leadership Inst.
- 강주현 역(2008). **젠 골프**. 서울: 한문화. Parent, J. (2002). *Zen golf: Mastering the mental game*. Doubleday.
- 고미숙. (2010). 체험과 도덕적 정서교육. **윤리교육연구**, 21, 81-108.
- 골프다이제스트사 편집부(2017). **골프 다이제스트**. 서울: 골프다이제스트사.
- 골프존 마켓인텔리전스팀(2013). **대한민국 골프백서**. 서울: 백산출판사.
- 골프포워먼 편집부(2017). **골프포워먼**.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권선영(2017). **무용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용의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무용향유체험의 질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길병희, 김만의, 류성림(2001).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김광호(2002). **골프에서 배우는 경영**. 서울: 오늘의책.
- 김동욱 역(2012).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집. 2012-2015**. 서울: 대한골프협회.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 (2012). *Golf Rules Illustrated*. Hamlyn.
- 김세기, 황경숙(2015). **한권으로 읽는 영미골프문화사**.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 김영(1998). 책 읽기와 사람됨: 독서(讀書)와 인성(人性) 함양(涵養)-수을안인(修乙安人)의 독서론(讀書論). **독서연구**, (3), 221-235.
- 김영규 역(2006). **이너골프로 10타 줄이기**. 서울: 아키온. Gallwey, W. T. (2009). *The inner game of golf*. Random House.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원중 역(2010).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서울: W미디어. Penick, H., Shrake, E., & Whitaker, J. (1993). *Harvey Penick's little red book*. Simon & Schuster Audio.
- 김원호 역(2006).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 서울: 북앳북스. Tresniowski, A. (2005). *Tiger virtues: 18 proven principles for winning at golf and in life (p. 190)*. Running Press Book Publishers.
- 김이리(2010). **골프장에서 하는 유머**. 서울: 지식서관.
- 김재춘(2000). 구성주의 이론에 나타난 학생의 지식 구성 능력의 비판적 검토 - Vygotsky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18(2), 1-16.
- 김종업(2014). **골프, 道를 만나다**. 서울: 대한미디어.
- 김정환(1982). **전인교육론**. 서울: 세영사.
- 김정환(1996). **인간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김정환(1998). **교육이란 무엇인가: 전인교육의 이념과 방법**.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연구소 소식.
- 김종택(1996). **운동학 연구법**. 서울: 대한미디어.
- 김현주 역(2003). **끝나지 않은 게임 전설의 골퍼 게리 플레이어아 들려주는 라이프 레슨 15장**. 서울: 휘슬러. Player, G. (2001). *The Golfer's Guide to the Meaning of Life: Lessons I've Learned from My Life on the Links*. Rodale Books.
- 김흥구(2014). **사랑과 골프**. 서울: 글로세움.
- 김효준(2015). **골프 다모레 : 캘리포니아 하와이 편**. 서울: 맑은샘.
- 문경남(2017)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건호 역(2005). **골프 스윙의 정석**. 서울: 샘터. Bradley, N. (2012). *The Seven Laws of the Golf Swing*. Random House.
- 박순표(2012). **까치 이현세의 골프가 뭐길래**. 서울: 새론p&b.
- 박영민 역(2012). **두려움 없는 골프**. 서울: 푸른솔. Dave Pelz. (2011). *Golf Without Fear: How to Play the 10 Most Feared Shots in Golf with Confidence*. Aurum Press.
- 박영민, 오재근, 한규조 역(2010). **골프 아나토미**. 서울: 푸른솔. Davies, C., & DiSaia, V. (2010). *Golf anatomy*. Human Kinetics.

- 박영진(2017). **골프 기술 향상을 위한 클럽 피팅**. 서울: 대한미디어.
- 박영진, 전재홍(2009). **골프 기술 향상을 위한 골프 클럽 제작과 피팅**. 서울: 대한미디어.
- 박종률(2003). 경쟁 스포츠 참여시 고등학생의 스포츠맨십 실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1),77-93.
- 박현우, 이재운(2001). 위기의 체육교육과 대안탐색. **스포츠과학연구**, 18, 61-72.29-42.
- 방민준(2010).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명상골프**. 서울: 화남출판사.
- 서경목(2009). **10년 젊어지는 골프 몸이 점점 좋아지는 '골프 몸' 만들기**. 서울: 아주좋은날.
- 서울경제신문사 편집부(2017).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2017.10**. 서울: 서울경제신문사.
- 서장원(2008).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 서사적 관점에 근거한 하나로 수업 적용**.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송태식(2014). **티칭프로 의사의 골프 처방전**. 서울: 힐링엔북.
- 성호준(2011). **골프는 인생이다**. 서울: 중앙books.
- 신임호(2013).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신준식 역(2011). **건강한 골프, 안전한 골프**. 서울: 신흥메드싸이언스. Levy, A. M., & Fuerst, M. L. (1999). *Golf Injury Handbook: Professional Advice for Amateur Athletes*. Wiley.
- 신차균(2000).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이념과 실제. **체육철학**, 23, 205-22
- 신희선. (2006). **여대생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2-119.
- 심재만 역(2008). **골프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성공전략**. 서울: 아카데미북.
- Joachin Skambraks. (2003). *Die 18-Loch-Strategie*. Gabal Verlag GmbH.
- 안문석(2015). **대통령과 골프 골프로 보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서울: 인물과사상사.
- 안용태(2012). **골프장 CEO**. 서울: 한국골프인재개발원.
- 안호원(2016, 8, 8). **골프야 놀자, “골프산업”**, <http://www.thegolftimes.co.kr>
- 원형중 역(2004). **피팅, 마음의 게임**. 서울: 루비박스. Dr Bob Rotella. (2005). *Putting Out of Your Mind*. Pocket Books.

- 원형중 역(2005). **위대한 골퍼들 그랜드 슬램을 꿈꾸다**. 서울: 조선일보사.
- Howard Sounes. (2004). *The Wicked Game: Arnold Palmer, Jack Nicklaus, Tiger Woods, and the Story of Modern Golf*. William Morrow.
- 원형중 역(2013). **골프의 달인 데이브 펠츠 숏게임 바이블**. 서울: 학원문화사.
- Pelz, D. & Frank, J. A. (1999). *Dave Pelz's short game bible: Master the finesse swing and lower your score (Vol. 1)*. Doubleday.
- 유재봉(2002). **현대 교육철학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사.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er*.
- 윤팔중(1991).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서울: 배영사.
- 은석준 역(2002).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 서울: 참술. Tracy M. Sumner. (2000). *Karsten's Way: The Life-Changing Story of Karsten Solheim-Pionner in Golf Club Design and the Founder of PING*. Northfield Publishing.
- 이기윤(2010). **유머로 정복하는 골프**. 서울: 위드스토리.
- 이다겸, 최영목(2017).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서울: 수류산방.중심.
- 이미숙(1999). 통합교육과정 실행의 관련변인 분석. **교육과정연구**, 17(2), 1-19.
- 이민표(2005). 체육교육의 위기와 나아갈 방향. **스포츠과학**, 92, 77-82.
- 이병민(2005).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와 미국의 리터러시교육, **국어교육** 117 (117) : 131-172.
- 이삼형. (2017). 학교 변화와 독서 교육. **독서연구**, 42, 9-28.
- 이상무(2007). **세상만사 골프만사**. 서울: 삼호미디어.
- 이상무(2010). **이상무의 왕초보 골프 가이드**. 서울: 삼호미디어.
- 이순숙(2013). **생각의 겹**. 서울: 월간골프헤럴드사.
- 이승배, 서장원, & 전세명. (2012).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의 네트형 경쟁활동 내용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219-241.
- 이용숙, 김영천(2002).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원호(1979). 한국 교육사에서 본 인간교육. **교육학 연구**, 8(2), p. 4
- 이정우, 이순천, 전윤수(2006). **최신 체육과교육론**. 서울: 대경북스.

- 이중현(2008). **시가 있는 골프**. 서울: 나눔사.
- 이찬성(2011). **골프 유머**. 서울: 스타북스.
- 이학오(2008). **골프에서 길을 묻다**. 서울: 쌤앤 파커스.
- 이해명(1983). **전인교육을 위한 학습서**. 미국 교육과정 연합회 편저.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현세(2007). **버디 6**. 서울: 중앙books.
- 이홍우(1996). 전인교육론. **도덕교육연구**, 8, 1-21.
- 인복스 편집부(1999). **페어웨이에서 천국까지 - 세계 골프 유머 100선**. 서울: 인복스.
- 임영창(2012). **알고 치면 더 재미있는 골프 이야기**. 서울: 문무사.
- 장복덕(2005). **인생 10년, 골프 1년**. 서울: 징검다리.
- 정미나 역(2004). **골프와 나의 인생 잭 니클라우스**. 서울: 김영사. Nicklaus, J. & Tickell, J. (2005). *Golf & Life*. Griffin.
- 정선이(2004). **마지막 라운드**. 서울: 아침나라. Dodson, J. (1997). *Final rounds: A father, a son, the golf journey of a lifetime*. Bantam.
- 정영근(1994). 전인교육의 이념과 한국의 학교교육 -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철학적 제언 -. **교육철학**, 12(1), 187-208.
- 조용환(2003).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 조진경 역(2008). **세계의 명품 골프장**. 서울: 월간사진출판사. Adam Scott, Fulvio Golob, Giulia Muttoni. (2013). *Golf Around the World: The Great Game and Its Most Spectacular Courses(Revised)*. Sterling Pub Co Inc.
- 천지애(2013). **즐거운 생활의 재발견: 초등 통합교과 수업모형으로서 하나로 수업의 가능성 검토**.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서울
- 최경주(2012). **코리안 탱크, 최경주**. 서울: 비전과리더십.
- 최의창 역(2000). **배거 밴스의 전설**. 서울: 두리미디어. Pressfield, S., & Whitener, B. (2000). *The Legend of Bagger Vance*. Simon & Schuster Audio.
- 최의창 역(2001).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서울: 대한미디어. Mike Linder. (1999). *Play It as It Lies: Golf and the Spiritual Lif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최의창(2001).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 대학에서의 체육지도를 위한 한 가지 접근.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2), 45-64.
- 최의창(2003c). **인문적 체육교육**. 서울: 무지개사.
- 최의창(2004). **21세기 체육교육의 변화와 방향성**.
- 최의창(2005a). **가지 않은 길 - 국민체육진흥과 전문체육인의 역할 재음미**. 제 24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자료집, 5-25.
- 최의창(2005c). 호올 스포츠와 하나로 코칭 - 인문적 스포츠교육론 서설.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3), 97-119.
- 최의창(2007). **골프 목상**. 서울: 레인보우북스. Honor Books. (2003). *And Then God Created Golf*. Cook Communications Ministries.
- 최의창(2007). 중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학문적 접근과 서사적 접근. **교육과 정평가연구**, 10(2), 349-376.
- 최의창(2009).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8(6), 243-260.
- 최의창(2010a).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 최의창(2010b).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의창(2010c). **댄스 리더러시 혹은 무용소양: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목표**. 미발표원고.
- 최의창, 전세명(2011). 운동소양의 함양: 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적 재검토. **한국체육학회지**, 50(1).
- 최병태(1996). **덕과 규범-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86.
- 최종욱(2005). **최고의 인생을 위한 게임**. 서울: 책이있는마을. Mc Hugh, D. E. (2004). *Golf and the Game of Leadership*. AMACOM.
- 한민국(2007). **하나로 수업에서의 전인교육 실천: 간접체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한은구(2008). **한은구 기자의 골프장 주변 맛집**. 서울: 클라이닉스.
- 한용수(2010). **골프콘서트**. 서울: 정은문화사.
- 한정은 역(2002). **이것이 골프 경영이다**. 서울: 큰나무. John Andrisani. (2002). *Everything I Learned About People, I Learned from a Round of Golf*. Alpha.
- 홍사중(2014). **골프는 인생이다**. 서울: 이다미디어.

- 홍웅선(1980). 인간교육의 방향모색. *교육학연구*, 18(2), 12-18.
- 홍은숙(1999). *지식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홍은숙(2007). *교육의 개념*. 서울: 교육과학사.
- 홍정균(2016).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 서울: 시대인.
- 황미정, 강현석(2004).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개념 중심 주제 단원(CBTU)의 설계 기저와 구안. *교육학논총*, 25(1), 63-92.
- 황복주, 이석광(2015). *영혼이 있는 골프 인문학*. 서울: 유원북스.
- AMG 편집부(2017). *더 골프*. 서울: AMG 커뮤니케이션.
- Atkinson, P., & Hammersley, M. (1994). *Ethnography and participant observation*. In Denzin, N. K. & Lincoln, Y. S.(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 CA: Sage.
- Bruner, J.(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e, T. Werner, P. Cone, S. & Woods, A. (1998). *Interdisciplinary teaching through physical educatio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Laker, A.(Ed.) (2003). *The future of physical education: Building a new pedagogy*. London: Routledge.
- Macdonald, D. (2003a). Curriculum change and the post modern world: Is the school curriculum reform movement and anachronis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 139-149.
- Marsden, D., & Wesson, M. (2007). Gateway to mental health services. *British Journal of Healthcare Management*, 13(5), 166-170.
- Marshall, C., & Rossman, G. B.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Minchew, S. (2002). Teaching character through sports literature. *The Clearing House*, 75(3), 137-141.
- Miura Wayman, M., Wallace, T., Wiley, H. I. Tichá, R., & Espin, C. A (2007). Literature synthesis on curriculum-based measurement in reading.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1(2), 85-120.
- Peters, R. S. (1977). *Ambiguities in liberal education and the problems of its content*. K. A. Stricke and E. Kegan(Eds.). *Etics and*

- educational polic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eters, R. S. (1983). *Philosophy of education. in P. H. Hirst(ed.). Educational theory and its foundation disciplin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Stringer, S., & Reilly, E. (2004). Literature circles in the physical education classroom. *Strategies*, 17(4), 35–37.
- Thorburn, M. (2007). Achieving conceptual and curriculum coherence in high-stakes school examinations in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2(2), 163–184.
- Tixier Y Vigil, Y., & Edwards, S. (2002). Using sports fiction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73(9), 53–57.
- VanderZwaag, H. J., & Sheehan, T. J. (1978). *Introduction to sport studies: from the classroom to the ball park*. William C Brown Pub.
- Vygotsky, L. S.(1934/1987). *Myschlenie I rech', N. Thinking and Speech, In R. W. Rieber, A. S. Carton (Eds.). The collected works of L. S. Vygotsky, Vol. 1 : Problems of general psychology*, Plenum Press.
- White, J. (1982). *The aims of education restat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hite, J. (1990). *Education and the good life*. London: Kogan Page.
- White, J. (1995). *Education and personal well-being in a secular universe(an inaugural lecture)*.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Whitehead, A. N.(1929). *The Aimes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mpany.
- Whitehead, M. (Ed.). (2010). *Physical literacy: Throughout the lifecourse*. Routledge.
- Wright, J. Macdonald, D. & Burrows, L. (Eds.) (2004). *Critical inquiry and problem-solving in physical education*. London: Routledge.

<부록1>

		읽는 골프		
		초급	중급	상급
골프소양	골프이해	<p>골프를 이것만 알면된다 2016-2017 골프, 정신력의 게임 골프도 독학이 된다 골프천재 탄도 까지 이현세의 골프가 워길래 아미추어골퍼가 자주 하는 골프실수 어프로치 & 퍼팅 레슨 이현세 버디 주말골퍼, 똑바로 멀리치기! 초보에서 싱글로 가는 골프이야기 프로골퍼 양용은의 초보 골프 레슨 필드에서 읽는 골프 책 Breaking 100 kpga 티칭 매뉴얼 하루 3분 골프 레슨 바람의 대지 그로잉 드라이버 바람의 스바루 이너골프 내안의 골프본능 몸으로 익히는 골프</p>	<p>고덕호 실전 골프레슨 골프 Golf : 프로 숏게임 따라잡기 골프 스윙의 원리 골프 스윙의 정석 골프 자신감의 게임 골프레슨, 나는 어떻게 골퍼를 치는가? 박지은의 프리미엄 골프 벤 호건 골프의 모든 것 보기플레이어가 되는 비결 소렌스탐의 파워골프 연습하기 싫으면 이것을 읽어라 임진한의 골퍼가 쉽다 토펜로 토펜레슨 GOLF 교정바이블 Cure Slice & Power Up Breaking 90 NEW 골프바이블 POWER 골프 이야기 프로골퍼도 몰래보는 골프책 모든 샷에 집중하라</p>	<p>골프, 완벽한 게임은 없다 나에게 맞는 골퍼는 분명 따로 있다 본능적 감각으로 익히는 골프스윙 스윙플레이어의 원리 위대한 선수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 했는가 젠 골프 클럽퍼팅 퍼팅, 마음의 게임 Dr. GOLF MANN 퍼팅으로 10타 줄이기 해비 페니의 리틀 레드북 Breaking 80 Private Lessons 숏게임 완전정복 데이브 팔츠의 퍼팅 바이블 골프역학 두려움 없는 골퍼</p>
	골프지	<p>골프 컨디셔닝 상식으로 정복하는 골프 그래, 난 골퍼에 미쳤다!</p>	<p>골퍼가 알아야 할 골프의 모든 것 골프,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알고 치면 더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화장실에서 읽는 골프 책 골프장 주변 맛집</p>	<p>열아홉번째 그린 잔디학과 골프장 티칭프로 의사의 골프 처방전</p>
	골프심	<p>골퍼와 백만장자 골프 없이는 못 살아 골프 유머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 그린의 정복자 대통령과 골프 느낌 아는 이여사의 골프이야기 내 인생을 바꾼 일주일 내 생애 최고의 골퍼</p>	<p>골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골프 시크릿 골퍼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골퍼는 인생이다 골프에서 길을 묻다 골프예찬 끝나지 않은 게임 내 인생 최고의 경기는 지금부터 니콜라우스의 골퍼와 나의 인생 배거 밴스의 전설 백악관에서 그린까지 스윙과 삶을 마음골프 위대한 골퍼들 인생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 주는 골프레슨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최고의 인생을 위한 게임 파이널 쿼츠 신지애 골프로 비상하다 하느님, 내게 골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건 이야기</p>	<p>한권으로 읽는 영미골프문화사 골퍼의 계급, 골프 목상, 골퍼의 계급 골프, 도를 만나다,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유럽 골퍼 인문 기행, 골프장으로 간 밀레와 헤르만 헤세 달마가 골퍼채를 잡은 까닭은 달인이 된 골퍼 당신은 행복한 골퍼입니까? 생각의 곁 세계의 명품 골퍼장 시가 있는 골퍼 천국에서의 골퍼 초월의 길, 골퍼 페어웨이에서 천국까지 펜 들고 골퍼장에 가다 핑 골퍼클럽 50년 이야기 60일간의 미국 골퍼횡단 세계의 명품 골퍼장 사랑과 골퍼</p>

Abstract

Sport pedagogical application plan with
reading-golf for fostering golf literacy

Lee, Sung Hee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til now on, we have focused on just playing golf in playing-skill base although we could learn various things through golf. There is a way to broaden literacy knowledge through golf, acquire expertise such as economy and management, and have a philosophy of life.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my thesis, which I would like to learn about golf through reading golf 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books for reading golf and to find ways to utilize it in sports education. In addition, Reading golf as golf literacy's explored in order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playing ability, develop personality considering its current status, and what are the ways to use sports education in reading golf.

For this study, the concept and lists of reading golf are summariz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lso, reading golf's classified, analyzed in many genre to collect information which could offer possible ways to use it for sport education in golf.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look at golf in a variety of ways in order to learn and

posses enjoyment correctly. For doing that, golf's playing ability, golf's general knowledges in many fields, and a golfer's mind, attitude are necessary. Those concepts as golf literacy can be classified into technical aspects 'golf neung', knowledge based 'golf ji', and 'golf shim' about mind. Secondly, the present status of reading golf books is about 400 golf books published through domestic large bookstores, online and overseas online. Among those 250 books are selected except for out of book and contains limited contents. After confirming the contents of the selected 250 books, they were divided into 16 genres. The genre of reading golf's management, golf course, culture, technology, novel, psychology, essay, person, self development, magazine, information, cartoon, humor, medicine, religion, club. Third, by reading various of book in technical, psychological, equipment of golf which refines the golf playing ability. Books for history, culture, novel, etc bring to player chances to build up her or his own knowledge. Religion, essay and self development etc subjected books're recommend to be read for spiritual, mind growth toward golf.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 golf coaching program using reading golf should be developed. The golf coaching program should be supplemented with reading golf so that the golf literacy can be increas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golf educator in the field about the reading golf. There is a need to be able to diversify these perspectives: performance, culture and application for well balanced in teaching and learning golf for all golfers.

**Keywords: Sport & Golf Literacy, Reading Golf,
Golf Education**

Student ID: 2006-21833